

섹션 I

교회와 선교

- 04 권두언 | 회복시대의 얼굴 손성호 담임목사
- 07 초동강단 | 만민이 기도하는 집 조향록 선집
- 12 초동강단 | 물러설 수 없다 신익호 원로목사
- 18 사진으로 보는 우리 초동
- 23 나를 숨 쉬게 하는 초동교회의 예배 임하늘 목사
- 25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박지온 목사
- 29 초동교회 교회학교를 섬기는 기쁨 이상준 목사
- 31 기드온섬김용사운동, 2022년을 되돌아보며 이선옥 권사
- 33 돈의동 골목 일기 김홍업 권사
- 36 막힌 지점에서 희망을 얻다 박소윤 청년
- 41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문정영 전도사

섹션 II

신앙과 삶

- 44 고(故) 박호준 권사 장례예배 조사 박혜성 집사
- 46 <기도문> 재난 / <서간문> 사랑하는 고(故) 남명희 권사에게 / <기행문> 목포, 1004대교 윤정희 권사
- 52 임인년(壬寅年)을 보내며 김순종 권사
- 54 신앙간증 |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심을 본 받아서 박민균 권사
- 58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 / 우리집 가훈 이천광 목사
- 63 잃어버린 고향 서동현 집사
- 67 폰트 | 성극을 도와 준 고려인 울여 이야기 박정근 권사
- 71 옛 스타와 함께 추억 속으로 박수신 권사
- 77 미국에서 3주 살아보기 간혜원 청년
- 80 90세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신다 허인업 집사
- 82 평화의 기도 오명희 장로
- 85 찬송가 악보 및 해설 김영진 원로장로



섹션 III
특집 :
다시 모이자,
풀밭 고을로

- 90 교회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최동익 원로장로
- 95 천사품에 안긴 나의 어머니 강귀순 권사
- 99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총 황성길 권사
- 102 포근한 어머니 품 같은 초동으로 다시 모입니다 나호천 장로
- 107 초동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이다 김범수 집사
- 109 초동교회는 미래를 향하는 교회이다 박형중 교육전도사
- 112 초동교회학교 회상과 미래 이경로 권사
- 116 성탄전야 단상 변건울 목사

섹션 IV
초동문예

- 120 처절한 제사 김의환 장로
- 121 그리움이란 에너지 / 너를 기억하려고 피는 꽃 이소희 권사
- 123 초동 동산에 모이라 하지요 이순안 권사
- 124 사계절 / 영취산 / 다시 논밭으로 정일웅 권사
- 127 만남 / 오고 가는 계절 차오성 권사
- 129 카타콤베 강귀순 권사

섹션 V
우리 초동

- 132 예배 및 행사일지
- 135 교우소식
- 139 초동의 기도

섹션 I

교회와 선교

<권두언> 회복시대의 얼굴 | 손성호 담임목사

<초동강단> 만민이 기도하는 집 | 조향록 선집

<초동강단> 물러설 수 없다 | 신익호 원로목사

사진으로 보는 우리 초동

나를 숨 쉬게 하는 초동교회의 예배 | 임하늘 목사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 박지온 목사

초동교회 교회학교를 섬기는 기쁨 | 이상준 목사

기드온섬김용사운동, 2022년을 되돌아보며 | 이선옥 권사

돈의동 골목 일기 | 김흥업 권사

막힌 지점에서 희망을 얻다 | 박소윤 청년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 문정영 전도사

회복시대의 얼굴



담임목사 손성호

소리 없이 우는 목사

요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별스럽지 않은 일에도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다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우들이 서서 찬송하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눈시울이 젖어옵니다. 강단 위에 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비로소 대면예배가 시작되고 깜짝 놀란 것은 저마다 얼굴에 세월이 너무나 질게 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꼬박 3년입니다. 그 사이 외식 한번 앓고, 친구들 만남도 끊고,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기독교 채널이 많아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설교도 더 많이 들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한 방송사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주인공들의 노래로 더할 수 없는 위로도 받았다고들 하십니다. 눈발에 선듯, 머리들이 더 하얘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굴..얼굴들이 모두 패이고, 주름지고, 내려앉고, 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은 '저와 목회자,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어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닙니다! 물론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저희들은 제 할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절과 외로움과 싸우시는 동안 가지셨을 '어떤 간절함'과는 사뭇 다른 감정들 사이를 그저 거닐었을 뿐입니다. '근접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친해지고,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단순 접촉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주 접촉하기만 해도 서로 친숙해지고, 호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한 채 지냈습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정착되었습니다. 감염을 막고자 사람들 사이에 간격을 두고 '밀집도'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자가 격리,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모임, 온라인 예배, 타인과 두 팔 간격 떨어지기, 모임인원 및 시간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악수대신 주먹으로 인사하고 물품이나 음식을 배달시킬 때도 문 앞에 놓고 가는 새로운 문화도 형성되었습니다.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유연해진 지금도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인사할 때, 목사는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어떤 교우들은 여전히 악수를 꺼리며,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시대의 신앙공동체

'회복'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접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곧장 다시 질문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것인가?' 대개 숫적 회복, 양적회복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린 지도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겨우 출석교인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로 함께 하던 많은 행사와 모임들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시대가 우리사회를 전보다 더 '비인간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 '외면'까지 합리화 시켰다는 생각도 거들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힘은 역시 교인들! 함께 모여 즐겁게 웃고, 대화 나누며, 때론 그 속에서 듣기 싫은 말도 듣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지만, 그래도 '얼굴과 얼굴로 서로 대하여 함께 했던 기억'이 교회생활의 추억입니다. 회복을 말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만남과 관계, 신앙공동체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이브리드 시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면이라고는 하지만 서로를 위해 비대면처럼! 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세밀하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이해와 공감, 환대와 사랑이 교회 안팎으로 절실해 보입니다.

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타자윤리와 환대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얼굴을 통해서 존재는 더 이상 그것의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앞에 나타난다." 레비나스는 윤리와 행동의 출발점을 행위의 주체인 '나'로부터가 아니라 '타자'로부터 찾아주었습니다. 이웃을 통하여 나는 윤리적 행위의 동기

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웃 또는 타자의 얼굴을 '신의 얼굴'이라 불러주었습니다.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같은 얼굴은 없습니다. 거기서 각자의 고유성이 증명됩니다. 얼굴은 정체성의 그릇이고 인격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얼굴은 '존재 자체'입니다. 얼굴은 '얼의 꼴'이라고도 하고, '얼이 들고 나는 꼴'이라고도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와 가족의 얼굴은 '세계'입니다. 대개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리는 그림은 '얼굴'입니다. 닳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이가 본 부모의 얼굴이고, 세계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인생을 드러내는 바탕화면이고, 인격과 마음의 파동을 나타내는 계기판입니다. 결국 얼굴 그 자체가 언어이고, 조금 비약하여 신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면사회'가 시작되었기에 짚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대면사회, 대면교회가 회복의 시대,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굴이라고 말했지만 드러난 얼굴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드러낼 얼굴, 드러내야 할 얼굴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가면은 통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얼굴 역시 대면상대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와 우리들이 먼저 진심을 드러내고, 마음을 전하고,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얼굴로 다시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바울은 전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았으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볼 것이요" 그는 미래의 소망을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서는 것'이라 일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먼저 얼굴과 얼굴로 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모이자 풀밭고을로!' 회복과 부흥으로서, 새로운 시간을 여는 2023년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 생각하니 설레입니다. 비대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외면입니다. 대면의 시간을 열며, 다시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초동의 얼굴들과 새 얼굴들을 기다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회복은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학자의 기개가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마음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로, 새로운 얼굴로! 초동의 역사가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풀밭이 발간되어 기쁩니다. 교우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출처: 조향록선집 I 권

이사야 56:1-8 / 마가복음 11:15-19

「가장 높은 생의 가치」(2009년 5월 31일 발행)



조향록 목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란 영적 결전장에 들어가셔서 처음 대결한 역사현장은 성전이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보면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 의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세 번째로 마지막이 되는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주로 죽으시게 되는 길이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역사의 초점은 어딘가? 경제인은 은행과 기업체에, 상인은 시장과 상품에, 예술가는 화랑과 책방에, 정치가는 국회의사당과 청와대에, 군인은 무기고와 전선으로 관심의 초점을 모읍니다. 국가의 안보를 염려하는 국민은 국방 태세에, 사회와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은 정치가와 행정 관리의 기강 여하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는데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관심하는 이들은, 심지어 미국 선거와 중일회담, 미중 정삼회담 등에 마음의 초점을 모으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초점을 어디에 집중시키고 계시는가? 그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무수한 민족들 중에 유난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그 민족만이 인간과 역사적 운명의 핵심을 성전에 두었고, 성전에 모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사를 결판짓는 초점은 심장인 것처럼, 인간이 인간다우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초점은 양심이고, 역사가 망하고 흥하는 것, 인간이 바로 되고 안 되는 초점은 그 속에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와 사회가 소망이 있는가, 장래가 밝은가 아닌가는 그 속에 종교가 살아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함입니다.

나는 태국에 가서 지방을 여행해 보았는데, 마을마다 도시마다 불교 사원이 한복판에 우뚝 서 있고 그 사원이 마을과 도시를 팔 아래 품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여기는 불교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국이나 불란서 독일 등지에 가면 마을이나 도시에 교회당이 가장 눈에 띄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기독교가 살아 있구나”하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소련이 공산당 천지가 되었는데 아직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큰 사원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원이 빈집이요 박물관이 되어 있으나 언젠가는 러시아에 종교가 다시 살아날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금, 종교가 없는 민족은 미개인이요, 종교가 살아있는 민족만이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우고 살아갑니다. 한 민족이나 사회가 그 속에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않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16-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 마음 속에 성전이 있어야 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외모나 살림 형편이나 교육정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 속에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진 것을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 가셨을 때의 성전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팔고 있는 사람, 각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들을 바꾸는 환전 업무로 소란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기간인데 유대인들은 본토에 있으나 외국에 나가 사는 자나 일 년 중 이때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꼭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가야하는 것이 종교상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득불 제물은 성전 가까이에서 사야 하고, 돈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 뜰은 장이 서고 복잡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이 거래를 관장하여 큰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 성전 마당은 장(場)마당이 되고, 종교가요 성직자인 제사장들은 장사꾼이 된 셈입니다. 타락한 장사는 속이고 속는 법으로 빼앗고 빼앗기는 행위로 까지 발전됩니다. 그러니 칼 들고 도적질하는 것은 아니라도 결국 말과 웃음으로도 강도질을 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종교와 성전, 양심과 지성, 이 지성소,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직자를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미끼는 첫째가 명예심이고, 둘째가 재물입니다. 세상에서 권력 투쟁이 가장 심각한 데는 정치계가 아니라 종교계요, 세상에서 가장 재물 욕이 많은 데는 종교계와 성직 사회입니다.

나는 로마 교황이 세계 어느 정부 어느 국가 제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타락으로 봅니다. 나는 로마 교회가 전 세계 어느 은행보다 더 많은 재물을 관리하고, 그 재물로써 이태리의 모든 양조장과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타락의 상징으로 봅니다. 법왕청 대리 은행, 암브로시아노 은행은 남미 카톨릭 집권자들에게 무기 자금까지 비밀히 대여한 사건으로 몇 명의 은행가가 연쇄 암살 사건까지 있었던 것을 압니다.

성직자는 보리밥을 먹고 일할 때와 좋은 요리를 먹을 때, 일의 내용과 말의 힘이 다릅니다. 교회는 판잣집에서 예배드릴 때와 궁궐 같은 곳에서 예배 볼 때에 그 내용도 분위기도 다릅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장로교회들이 일년에 한 번 하고 마는 총회장이 되기 위해 수천만 원의 운동비를 쓴다는 소문이 사실이라 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따위들이 대표가 된 교회가 어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 괴상하고 뻔뻔스러운 것은 그 짓을 하면서도 사회의 부정 부패를 규탄한다, 사회 정의를 외친다고 설교를 하고, 성명서를 내고, 심지어 가운을 입고 데모까지 한다 하니, 양심이 마비되고 얼굴에 철면피를 쓴 자들의 소행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가 멸망하는 것은 정치나 군사가 부실해서라기보다, 그 국가 안에 있는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 사람이 없어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통일 찬송가 값이 제작비 보다 배나 더 비싸게 판다 하여 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 그 막대한 이익금을 각 교단들이 나누어 가지고 교단 실무자들이 그 돈으로 교권 유지비등 별별 데 다 쓰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 합니다. 실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책을 파는 것, 찬송가를 파는 것이 이권이 되고, 목사와 장로가 거기에서 이익을 취한다 하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며, 한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의 재정은 과부의 엽전 한두 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보다 사업이 앞서면 안되고, 신앙보다 형식이 더 찬란하면 안되고, 기도보다 프로그램이 앞서도 안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모든 개혁과 혁명보다 먼저 할 혁명은 종교 개혁이요 양심 혁명입니다.

1925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삼 주 동안 의논해 보니 교파간의 장벽이 너무도 높아 하나 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까를 연구하여 1932년에 다시 모였을 때 거기서 나온 결론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 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안되면 하나될 수 없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성전답게,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교단을 교단답게, 한국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혁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장마당이 된 성전 뜰을 청소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엮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쫓았습니다. 일종의 성전혁명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결핍하면 '혁명, 혁명'하는데 참된 혁명은 양심의 혁명이요, 종교의 혁명이 일어나야 혁명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총 들고 덤비는 혁명은 바보라도 하고, 또 바보들만 하는 것입니다. 총 들고 혁명한 사회 치고 그 혁명을 반대하는 결과를 보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참된 혁명은 마음의 혁명이요, 양심의 혁명이요, 종교의 혁명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둬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 3:3)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종교의 혁명, 마음의 혁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혁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나를 혁명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혁명의 순서는 어떠합니까? 우선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고, 내어 쫓아 버리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복하는 일입니다. 우선 복잡한 것을 내어 몰아버리고 깨끗하고 조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신 기능입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요,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고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신을 터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자기의 자리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교신하지 못하면 자기의 갈 길도 바로 잡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된 성전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여서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자는 끝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국가를 창건하는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으나 그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나중에 제사장이 해야 할 하나님 제사하는 직분까지 자기가 강점하려 하

여, 하나님은 급기야 그를 파하여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을 세워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봉대한 정권은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과 종교를 업신여기며 양심을 버린 집권자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인간은 부족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를 열왕기상 8:27-53 이하에 보면 그 뜻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물러설 수 없다

- 2022년 7월 31일 주일설교

민수기 14:1-8 / 마태복음 16:21-28



신익호 원로목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경험하는 코로나문제, 경기침체, 그리고 낮과 밤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시련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떤 경우에는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어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됩니다 십자가를 저서는 안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선 다던지 포기한다던지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고 하는거,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가지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는 부정성향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가용성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성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한다던지 큰일을 한다던지 그럴 때 많은 분들은 “안됩니다 우리의 힘이 약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어렵습니다.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반대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부정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가지 가용성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정보 이런 것이 머릿속에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내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아니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후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러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이제 막 복음운동을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겁니까?” 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매일같이 어두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시련과 어두움을 극복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복지가 반드시 우리앞에 다가온다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반대하고 일어섰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10년 20년후의 일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뒤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보면 이같은 생각에 매였는지 알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해 나가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가능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런 것을 극복해나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수 있는 이같은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겁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던지, 봉사한다던지, 사회에 동참한다던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긴다던지, 이 모든 점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39 “우리는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질자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선하고 보다 의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하면,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걱정을 넘어서, 진지하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평정, 평정심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은 조그만 시련에 불안해하고, 병마에 걱정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거, 언젠가 우리도 잡혀가는게 아닐까? 언젠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는게 아닐까? 여러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다면에서도 의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것을 사람들은 평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편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라고 하는거, 어떤 시련도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해나가야 하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지난 정초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만나자고 해서 강남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잠깐 은행에 들러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일로 직원을 만났고, 제가 서있으니까, 지점장 되는 분이, 저를 차 한잔 대접하겠다고 자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점장 되는 분하고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을 처음 뵙습니다. 이야기도 조금 나눈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뵈니까 어딘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편안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결이라뇨 그런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예배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조금이라도 감당을 해나가면, 우리 가운데에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나쁜만이 아니라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시지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조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학을 다니던 젊은 날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에 두끼를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언젠가 친구를 만나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좀 받자. 그래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십일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아니하면 도둑질과 다름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도둑놈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 도중에 교회에서 나오고 30년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십일조 강조 안하는 교회를 소개해드리지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몇 달전부터 가까운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있는 인과응보의 문제는 교회를 떠난다고, 신앙을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굳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것,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전부가 끊임이 없는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억압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같은 많은 어려운 문제는, 사회제도가 잘못되는데서 생긴 것이라고.....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쪽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루소가 걱정한 이런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람은 개혁

을 만들고 혁명을 일으키고, 특별히 공산주의 혁명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생명을 억압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살자고, 그러나 이 모든 전부는 도로아무타불이 되었다고 그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왜 인간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산다고 똑같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을 이분은 강조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가정이라고 하는거,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을 다하는게 우리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불행을 겪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이 우리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며 산다고 하는 것, 이분이 강조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점점 우리가 넓혀 가야 하겠다, 그분은 그렇게 강조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염려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넓혀가는 것을 이분은 공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돕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준다고 하는 것, 이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그만 경험입니다만, 얼마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신촌에 간적이 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밖에 나와서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걷자! 빨리 걸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산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뒤에서 어르신 어르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리라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빨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제 어깨를 툭 치는게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전혀 모르는 젊은 부부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비를 맞으면 안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감기에 걸리면 안됩니다. 어르신께서는 더욱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우산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쓰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5분만 걸으면 전철역에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젊은 부부가 끝끝내 우산을 나에게 주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전 우산을 쓰고 전철역에 가서 우산을 보니 그것도 새 우산이었습니다. 만나본 일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그런데도 서로가 염려 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생명이 가능합니다. 이 땅

에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같은 마음을 다짐해나가야 하지 아니할까?

디모데전서 6: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생명을 존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짐해나가는 마음들, 이같은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에 아부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삶과 평화와 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이같은 신앙과 정신을 이어 간직하는 우리들의 삶, 어떤 고난과 부정에도 믿음위에 굳게 서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초동



2022. 01. 02. 청지기주일



2022. 01. 06. 여신도주일예배



2022. 01. 06. 여신도주일예배



2022. 02. 06. 청년부 봄 수련회



2022. 04. 10. 종려주일 세례식



2022. 04. 16. 부활절 달걀포장



2022. 04. 17. 부활주일



2022. 04. 17. 부활주일



2022. 05. 01. 어린이, 청소년주일



2022. 06. 02. 전체 여신도회 수련회



2022. 06. 02. 전체 여신도회 수련회



2022. 06. 19. 권사 임직 예식

섹션 I 교회와 선교



2022. 06. 19. 권사임직예식



2022. 07. 03. 제직 수련회



2022. 07. 12. 전체 남신도회 야유회



2022. 07. 12. 전체 남신도회 야유회



2022. 08. 14.-15. 청년부 여름수련회



2022. 08. 14.-15. 청년부 여름수련회



2022. 08. 21.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2022. 08. 21.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2022. 08. 27-28.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2022. 09. 18. 남신도회 주일



2022. 10. 02. 교회창립 77주년 기념예배



2022. 10. 02. 교회창립 77주년 기념예배

섹션 I 교회와 선교



2022. 10. 02. 교회창립 77주년 기념예배



2022. 10. 16. 추수감사주일



2022. 10. 16. 추수감사주일



2022. 11. 23. 기드온섬김용사운동 김치나눔봉사



2022. 11. 27. 연합구역예배



2022. 12. 18. 성탄절 맞이 세례, 견신례

나를 숨 쉬게 하는 초동교회의 예배

임하늘 목사

어느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 목사님, 초동교회 예배당이 개신교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예배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지 반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미천하기에 대단히 신중하게 언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의 깊숙이 실려 있는 의미와 깊이는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익히 들으셨을꺼라 사료되기에 생략합니다. 그저 소소하게 제가 느낀 바를 짧게 옮깁니다.

누군가 제게 초동교회의 예배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한 마디로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초동교회 예배는 클래식(classic)합니다.”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고전적’으로 번역됩니다. 1부(경건과 영성), 2부(장로교 예전)예배를 소개하는 글귀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지요. 저는 ‘클래식’이라는 표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한 개인에게 클래식, 고전을 접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디 클래식의 어원은 로마의 최상위계층인 클라시쿠스들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제공한 함대를 의미합니다. 함대는 공간도 넉넉하고 성난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상징입니다. 내공을 다지고 어려움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배려의 말로 클래식을 권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는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들어와 있는 누룩과 같은 형태의 예배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겠지만, 예배의 본질이 조금 퇴색되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초동의 예배는 엄숙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함과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패역한 세상에서 지쳐 쓰러져 가는 우리들에게 큰 함대(시편 71:3-8)가 되어 다시 새로운 용기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간은 무척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 공간에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상황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얼마나 커다란 관심과 가치와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가에 대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종인 우리와 함께하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계심을, 그런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겸허하게 엮드리는 것 뿐이라는 것을..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오롯이 주님에게만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늘 초동교회 예배에 이러한 해시태그(hashtag)가 붙여지길 소망합니다.

개신교 최고의 예배당 # 클래식한 역사의 반복 # 교우 기쁨_업!

녹록지 않은 삶.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닿을 수 없는 함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풍성함에 눈 뜨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생명나무 그늘 아래 앉게 됩니다. 뜨거운 무더위의 흘러감을 기대하는 신선한 가을바람처럼,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 봄이 머지 않았음을 기대하게 하는 한 줄기 따뜻한 햇살처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용기를 장착하게 되는 클래식한 초동교회 예배..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4-5)



임하늘 목사는 2008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동안 한신교회, 광명교회, 연세대학교, 대전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2022년 5월말에 초동교회에 부임하여 초동의 예배를 함께 향유하고 있다. 아내 장세연과 행복한 나날을 누리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박지은 목사

위의 질문은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던진 질문으로, 실존적이며 현재적인 측면에서 예배와 예전의 중요성을 성찰 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질문 속에는 “오늘/현재 우리에게 (für uns heute”)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와 예전뿐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열린 예배라는 실험적 예배를 신학적 검토와 비판 없이 교회에 받아들였고, 그 결과 예전을 강조하고 제대로 수행하는 예배와 교회는 상대적으로 지루하고 낡은 것으로 인식되어 많이 약화·축소되었다. 교회의 예배는 감성과 감정만을 자극하는 쇼비즈니스나 연예오락프로그램이 아니다. 현대인의 인식과 문화에 맞추어서 예배와 예전의 갱신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배 회복 또는 예배 갱신이라는 미명 아래 예배와 예전의 전통성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해외의 여러 교회 공동체를 경험했지만, 초동교회의 예배와 예전 집례는 실로 자랑스럽고 모범이 될 만한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탄할 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한국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세련되고 화려한 것들로 예배당과 예배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는 이 때에는 더욱 그러해 보인다. 그러나 초동교회

는 예배 공간, 예전, 그리고 교회력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예배를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변형시켜왔다. 예배의 전통적인 형태를 지키면서 현대인의 인식에 맞추어 다양하게 예전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 중심에는 성만찬의 강조도 빠트릴 수 없다. 초동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 일 년에 4회 뿐이었던 성만찬 예식이 “1985년 1월부터 매월 첫 주일과 교회절기와 특별행사시 마다 드리기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적혀있다(풀밭, 2021 봄, 제 159호, 111). 성만찬의 횡수가 늘었다는 것은 예전이 가벼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을 재연해 내는 예배의 본질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요, 초대교회가 누린 공동체의 ‘넘치는 기쁨’의 결정적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 초동교회만의 독특성은 또 있다. 성만찬 제정사에 이어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할 때 집례자의 세리머니이다. 여느 교회와는 다르게, 기도하는 집례자의 한 손이 위를 향해 다른 한 손은 아래를 향한다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에도 기도한다. 어떤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는 것일까? 성만찬에서 분병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사건이요, 자기를 내어줌의 사건이다. 분병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고, 수찬은 부활에 동참하는 것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김순환, 21세기 예배론: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추구하며, 211-214). 그러므로 분병과 수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성화를 위한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를 위해서는 왜 기원하는 것일까? 초대교인들은 성만찬에 쓰일 이 빵과 포도주를 직접 준비해서 “봉헌”했다. 유스티누스 때에도 빵과 포도주는 “성별”된 음식으로 생각했고, 3세기 경 이집트 하류 지역의 감독 트무이스의 세라피온과 키프리아누스는 이미 성만찬을 신학적으로 교회의 “봉헌” 제물과 “봉헌” 예식으로 정의했다(빌리암 나아겔/박근권 역,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 51). 즉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과 이를 위해 쓰이는 음식도 성별/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동교회의 성만찬 예식에는 혼잡함과 재촉함이 없다. 지극히 질서적이고 심미적이다. 신학적 전통을 지키면서 독특한 예전적 갱신을 통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초동교회의 전통적 성만찬 예전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며 다녔던 교회는, 올해로 826주년을 맞이하는 베드로교회(Peterskirche/페터스키어케)이다. Kirche(키어케)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일상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는 ‘키어케’보다는 ‘게마인데’(Gemeinde/공동체)가 더 보편적이다. 목사나 교인을 소개할 때도 “우리 공동체”의 목사/교우라고 하지, “우리 교회”의 목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에게 희생된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전쟁 참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독일교회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기독교인들은 신앙 공동체의 의무와 행함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쓰는 것이 개인의 신앙만큼이나 매우 중요해 보였다. 그렇기에 그들의 예배는 전체 공동체의 책임과 협력으로 축제를 만들어 감에 집중한다.

이러한 독일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성만찬 예식에서도 볼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두 가지, ‘설교 예배’(Predigtgottesdienst)와 ‘성만찬 예배’(Abendmahlsgottesdienst)로 구분해서 드리며, 성만찬 예식 때 분병과 수찬을 받기 위해 교인들은 모두 앞으로 걸어 나온다. 참여 교인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 예배당 안을 빙 둘러서서 서로의 어깨가 마주할 정도로 가깝게,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서서 성만찬을 진행한다. 다행히도 독일교회의 제단 뒤편은 한국교회에 비해 훨씬 넓고 크다. 베드로교회는 보통 새벽이나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이곳 제단 뒤편에서 진행한다. 교인들은 직접 떡을 집어들어 먹고, 직접 잔을 쥐고 포도주를 마신다. 특별한 것은 이 예전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내에 알콜릭 환자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알콜을 마시면 안 되는, 그러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제단에는 무알콜 포도주가 함께 준비되어 있다. 물론 베드로교회에는 이러한 교인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에 예상하지 않은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베드로교회의 성찬기는 교회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몇 년의 준비기간을 걸쳐 2018년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성찬기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인데 “우리의 세상과 오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unsere Welt und unsere Erwartung des kommenden Gottes)이다. 자세히 보면 떡과 포도주를 담는 그릇과 잔의 밑단은 부식되고 깨져있다. 이것은 삶의 연약함, 세상의 잔인함, 그리고 모든 소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돌과 타락을 의미한다. 이 모든 인간사의 고통과 폭력 그리고 불의 앞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릇과 잔의 윗부분은 황금으로 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며, 그 예수님의 깨지고 상함을 통해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과 연결된다.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떡을 집을 때마다 그릇의 깨짐을 직접 보고, 잔을 손으로 쥘 때마다 상처를 직접 만지고 느낀다. 성만찬 예식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맛보는” 직접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때때로 도마와 같이 의심에 휩싸였을 때 재확신/재확답의 시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초동교회와 베드로교회의 성만찬 예전은 다른 듯 보이나, 둘 다 각자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지키고 전승되어진 그리고 전승되어야만 하는 귀한 전통임에 틀림없다. 두 교회는 모두 신학적 전통을 고수하며 독특한 각자만의 예전 방식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남을 기대한다. 성만찬의 형식은 단순히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적 실재의 표징과 상징이며, 성만찬 안에서,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개인과 공동체의 죄에 대한 회개와 경건한 삶에 대한 결심을 하게 만든다.



전주 들녘교회 전도사, 교회여성연합회 간사, 초동교회 전도사, 준목 독일 베를린 한인교회,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교육목사, 현재 초동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다.

초동교회 교회학교를 섬기는 기쁨



이상준 목사

제가 이 곳에 교육 담당 목사로 부임 했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국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2년 초에는 코로나가 조금씩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때도 마찬가지로여서,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어린이가 있었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아유치부도 마찬가지로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로였고, 청년부만이 확실하게 대면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접 나오는 대면예배에 대한 회복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교회학교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다시 살아날까요?”, “아이들이 찬양과 울동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문화적인 사역이 교회를 살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교회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고, 저도 나름대로의 생각들이나 방안 등을 나누며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교회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시고, 교회에서 집이 가깝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 봉사하시고, 수련회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애쓰시며, 청년 선생님들께서는 교회학교 봉사를 드린 후,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는 것에 성실하셨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장년층 분들과 대화해보면 ‘어린시절 교회에 나갔을 때 즐거운 추억들이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란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며, 따뜻함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초동교회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의 기쁘고 행복한 추억이 있는 교회, 아이들에게도 같은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봅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초동교회 교회학교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대면예배와 모임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작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친구가 안 보이면 “그 아이 오늘 못 온대요?”라고 묻는 어린이, 교회에 빠지면 안된다는 말을 오히려 부모님께 하는 어린이, 헌금위원을 먼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손드는 어린이,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이상 걸리지만, 꼭 교회가 좋아서 꼭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 그런 자녀들을 외면하지 못하여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부모님들, 1학년인데도 기도문을 손으로 직접 써서 용감하게 대표기도하는 어린이. “지난주 설교내용을 바탕으로 대표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못 갔어요.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라고 묻는 어린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던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의 집과 교회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게 된 교회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회학교를 섬기는 기쁨”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비어있던 예배당의 자리가 채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교회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기도를 드릴줄 모르던 아이들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성경을 잘 모르던 아이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교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기쁨은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낀다는 한 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를 섬기는 기쁨’이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섬기는 이’들과 ‘교회학교에서 섬김 받는 이’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초동교회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섬김용사운동, 2022년을 되돌아보며



이선옥 권사
(기드온섬김용사운동대장)

올해도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며 뜻 깊은 시간들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겨울 무렵 코로나 펜데믹이 기승을 부리다가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어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텅 빈 성가대석에서 새벽을 깨우며 시온성가대가 다시 찬양을 드리게 되었을 때, 감동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초동 여신도 전체 수련회를 6월 안성에서 열게 되었을때도 모든 여신도회 회원들은 기쁨으로 하나 되었다. 손성호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임하늘 목사님의 귀여운 율동으로 한층 더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로움과 성령충만함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3년만에 갖게 된 자연 속 뜻 깊은 수련회였다.

초동교회에서 자타공인 제일 긴 역사를 자랑하는 기드온 섬김용사 모임(이후 기드온으로 호칭함)도 2019년 연말이후 3년을 불가피하게 휴지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친목 모임과 월례회를 통해서 기드온들은 어떻게 활동을 재개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했다. 교회선교센터 청결히 하기, 반찬 만들어 연로하시거나 병환중인 교회 어르신, 돈의동 주민 나눔등 안전이 나왔으나 펜데믹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광명의 집 방문 봉사, 김치 나눔 봉사(독립문교회 김치 나눔, 돈의동 주민 김치 나눔), 종로 3가역 차 나눔등 본래 했던 활동들도 자연스럽게 비대면 상황으로 종료되었다.

드디어 지난 11월 23일 김장 나눔 봉사를 하게 되었다. 모든 교역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었고, 오래간만에 기쁜 기드온 김장 나눔 봉사였다. 점심을 제공하신 권사님, 맛있게 식사를 만들어주신 권사님, 간식을 제공하신 권사님 등, 우리 기드온을 도와주신 많은 손길이 있었다. 지면을 통해서 감사인사를 기드온들이 합동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비 활동중인데도 꾸준히 후원하시는 집사님 “고맙습니다.” 기드온들은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며 중보기도로 연합하여 하나되는 영적교제도 중요시 한다. 자녀를 키우며 결혼시키고, 손자손녀를 돌보는 기드온들도 있다.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돌보는 기드온들도 있다. 가정이나 사회, 교회에서 어느 역할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기드온들은 기드온이라는 의미있는 역할에 기쁨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언제든지 초동교회 성도라면 기드온이 될 수 있으며, 신입 기드온들을 두팔 벌려 환영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기드온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2023년 난민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 주셨다. 초동교회 기드온과 ‘피난처’라는 국제난민지원 모임이 연합하여 뜻 깊은 여정을 이루어 가려 한다. 이 사역은 우리들만의 발걸음이 아니다. 이제 곧 시작 될 프로젝트.. 옷, 쌀, 스파게티 면 모으기 등은 우리 초동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주셔야 한다. 한 사람의 열걸음이 아닌 열사람의 주를 향한 한 걸음! 앞으로도 기드온섬김용사운동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란다.



돈의동 골목 일기



김흥업 권사
(지역사회선교부장)

반쯤은 옆으로 비켜서서 양보해야 하는 좁다란 골목. 모든 골목길이 마치 막다른 골목길인 듯한 인상을 주는 골목입니다. 뒷집 진 어른들의 헛기침 소리, 씹박질 하듯 뛰어노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있음직 해 보이는 골목인데, 아이들이건, 덩달아 뛰어노는 강아지건 전혀 보이지 않는, 습한 냉기만이 침묵하듯 감돌고 있는 골목... 분명 골목다운 골목 풍경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500여명이 저녁에는 ‘그냥 잠자고’ 아침에는 ‘그냥 깨는’... 일명 “쪽방촌”이 있습니다. 차마 입을 떼기가 머뭇거리지는 일이지만, 이곳은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6.25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아시는 일이지만, 이 쪽방촌은 6.25전쟁 때,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어린 동생들의 입에 밥숟가락이라도 넣어주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초동교회는 원래 종로구 초동(중구 소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동교회는 그 곳을 떠나 여기 종로구 종로3가 돈의동으로 이전해 온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종로3가 쪽방촌 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운 것이지요. 이런 교회가 서울에 또 있을까요?

여기 쪽방들의 방문은 옆으로 밀치는 미닫이 문이 대부분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지요. 방문들은 오래 돼서 한 번에 잘 열리지 않고 삐걱대며 반항(?)을 합니다. 이 쪽방마다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늦은 아침나절임에도 미동도 없이 누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셈이지요.

이 분들에게 있어서는 ‘고독하다’ ‘외롭다’는 말들은 사치스런 언어유희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 고개를 넘어선지 오래 된 분들입니다. 예전, 서울역과 청량리역의 독거 어른들 수백 명을 조사한 어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의 가슴을 제일 아프게 하는 말은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도 “우리 어머니”, 제일 싫어하는 말도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매주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초동교회 지역사회부 성도들은 갓 지어낸 따끈한 식사를, 영하의 찬바람 속에서도 양손에 이 음식을 들고 여기저기 쪽방의 미닫이문을 두드리고 엽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찬바람 아랑 곳 없이.... 해맑은 웃음을 얼굴에 담고 미닫이를 여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운 상태 그대로 엷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독거 어른들... 미동도 없이 누워만 계신 독거 어른들, 머리맡에 식사를 놓고 “따뜻한 밥과 국입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이 밥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따뜻하게 지은 밥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꼭 건강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눈 감은 채,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벌써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쌀쌀한 겨울의 아침 공기이지만, 마음은 훈훈해집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 예수님의 심부름꾼과 누워 사시는 독거 어른들, 주일의 아침 해는 언제나 밝고 따뜻한 햇살로 내려와 우리 모두를 감싸 줍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감사와 기쁜 마음이 골목을 감돕니다.

* 여기 쪽방촌 골목길에 오면 생각나는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내 삶이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 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다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행복이 보인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비워진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 보자구요.

연세대 설립자 언더우드 기도문

감사합니다.



막힌 지점에서 희망을 얻다

(2022년 청년부 기록)



박소윤 청년
(청년부 회장)

온 세계가 COVID-19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찬란하던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한순간 우리에게 공격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바뀌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공포는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을 문을 열 수 없었고, 우리는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처음 1년은 먼 곳까지 시간을 내어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을 즐길 수 것이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2년여의 시간동안 “함께”가 아닌 “각자”로서의 삶과 예배는 영적인 교제를 모두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과 이름만 기억할 뿐, 영적 존재로서의 소중함과 서로가 주는 알뜰한 기운 그리고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을 깨고 드디어 사회를 비롯한 교회에 제약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로 나와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참 기뻐고 반가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과는 달리 그 어색함과 낯설음은..

그래서 2022년 청년부는 “초동 청년부의 정체성 찾기”라는 모토 아래 예배와 관계성 회복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박지은 목사님을 비롯한 서의경 부장님과 홍성용 차장님 그리고 임원들은(박소윤, 남준엽, 간혜원)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의견과 방법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청년부의 예배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 맡겨진 큰 속제는 주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부 주보에는 예배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매주 청년부원을 소개하는 칸을 만들어 “다시” 서로를 알아가게 하였습니다.



1부 청년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그리고 또 새로 올라온 신입생들과 기존 청년들의 유대관계를 위해 2부 순서를 만들어 많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깊게 소통하고 추억을 만들었는데, 1년동안 서로 사랑으로 함께한 청년부 활동을 아래 사진들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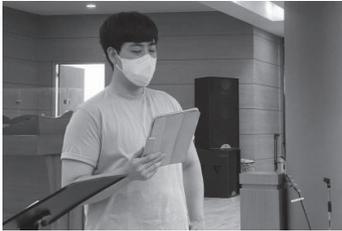
1. ‘친해지길 바래 1’(22.05.08)

신입생 1-2명과 선배 청년 1명이 서로 짝이 되어 ‘빙고맞추기’ 게임을 하였고, 이 게임을 통해 서로 한팀, 한 공동체로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우승한 짝들에게는 음료상품권이 주어졌으며, 각자가 아닌 짝이 함께 가서 음료와 다과를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친해지길 바래 2' (22.05.15)

청년부 예배 후, 남준엽 총무의 인도로 두 팀으로 나눠 초성게임, 몸으로 말해요 등 함께 몸과 맘으로 부딪혀 알아가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신나고 치열했던지...서로 큰 소리로 환호하며 응원하던 모습이 ㅎㅎ



3. 청년부 특송(22.06.19)

6월 19일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권사임직예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청년부는 이날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해 주실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특송을 했습니다. 축복과 감사는 받는 것 만큼이나 주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생일파티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생일자를 축복하며 수많은 인연 중에 초동 청년부 신앙공동체로 만나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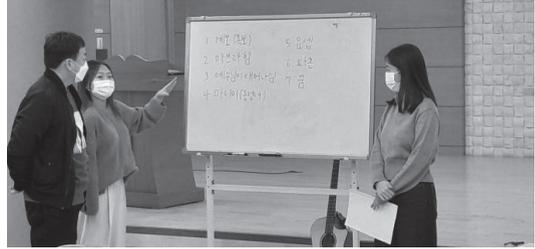
5. 여름수련회(22.08.14~15)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주제로 1박 2일동안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삶에 “쉼”과 “활력”을 재생시키고, 더 크고 싶은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6. 성경공부

청년부는 신앙과 예배회복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두 번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며 때로는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7. 자유 교제 활동

이제는 예배와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도 밖에서 모임을 가져 더욱 돈독한 청년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평일에는 서로 떨어져 지내지만 그 각자의 시간들이 외롭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늘 느낍니다.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문정영 전도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매 주간 보라색 초 하나씩 켜 가는 어둠 속에서 고요히 지나가는 대림절 풍경이 올해는 괜히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서 어둠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런지 작은 촛불 하나보다는 더 많고 더 밝은 희망의 촛불이 온 천지를 밝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려 합니다.

신경숙 집사는 종로로 이사 오서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환한 웃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강명섭 성도는 드보라 회장 강수연 집사의 아버님, 저 멀리 양주에서 일찍 오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사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김홍삼 성도는 동의동 나눔 봉사에도 묵묵히 앞장서시고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신경숙 집사



강명섭 성도



김홍삼 성도

여러분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되새기고, 복음 전파를 함께 의논하며 실행하려는 모임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동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6월 19일(주일) 2부 예배시 권사임직예배 예식과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었다,
새로 임명된 권사 20분과 집사 16분이었다.
새로 임명된 제직들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남권사: 김종건, 이희철, 전흥빈, 정형직, 김기근, 현진상, 남승우, 박민균, 이남선, 조창연,
한동효(11)

여권사: 정선훈, 김정민, 이명순, 김선주, 김인순, 백경진, 황혜련, 이명심, 김선민(9)

남집사: 김태형, 이제원, 이병호, 이정훈, 정원영, 한신희, 김요셉(7)

여집사: 신경숙, 양선미, 최재임, 배윤정, 전이환, 김민주, 김현주, 곽화영, 주은희(9)



섹션 II

신앙과 삶

고(故) 박호준 권사 장례예배 조사 | 박혜성 집사

<기도문> 재난 | 윤정희 권사

<서간문> 사랑하는 고(故) 남명희 권사에게 | 윤정희 권사

<기행문> 목포, 1004대교 | 윤정희 권사

임인년(壬寅年)을 보내며 | 김순종 권사

<신앙간증>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심을 본 받아서 | 박민균 권사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 | 이천광 목사

우리집 가훈 | 이천광 목사

잃어버린 고향 | 서동헌 집사

콩트 | 성극을 도와 준 고려인 율여 이야기 | 박정근 권사

옛 스타와 함께 추억 속으로 | 박수신 권사

미국에서 3주 살아보기 | 간혜원 청년

90세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신다 | 허인업 집사

평화의 기도 | 오명희 장로

찬송가 악보 및 해설 | 김영진 원로장로

고(故) 박호준 권사 장례예배 조사



박혜성 집사

저는 자라면서 막연히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 범 없이도 사시는 분, 착하신 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조금 더 깊이있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약 8년전, 혈액암 판정을 받으신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저희 생각보다 빨리 또는 갑자기 저희들의 곁을 떠나시게 될까봐 되도록 시간을 많이 가지고 원하시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여행을 다니고, 꼭 가시고 싶은 곳을 가는 프로젝트를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아버지는 이토록 우리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고, 우리 가족들 뿐 아니라 주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곁에서 보면 볼수록 늘 놀랍고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폐렴을 겪으실 때 저희가 간병을 하는 동안 들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같은 놀라운 인생이야기였습니다.

6.25때 폭격을 맞아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폭격의 잣더미에 묻혀 팔만 보여 겨우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한 미군에 의해서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구세군 보육원 원장에게 큰 돈을 주고 특별한 아이이니 잘 보살피라고 맡겨지신 이후, 영민하고 똑똑한 아빠는 공부를 잘하여 두각을 나타내시고, 당시 명문 중학교인 경북중학교에 지원하였으나, 낙방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들이 알아보니, 보육원 아이라는 이유로 떨어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당시 백두진 국무총리가 방문사찰 하였을 때 억울함을 호소한 원장 선생님 덕에 아빠는 다시 경북중학교에 입학금, 등록금까지 면제되어 학교를 다니시게

됩니다. 그 이후 경북중학교에서도 늘 1등을 하고 반장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셨고, 역시 경북 고등학교에 입학하셨으나,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보육원 입장에서 사랑해주는 선생님의 권유로 학교에 사정을 해 서울사범학교에 다시 입학하시고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교사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상업 학교에서 아버지와 같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돌보시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아버지의 삶을 알고 보니, 아버지는 용기가 대단하신 분, 총명하시고 영민하신 분, 비록 어린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사랑을 못 받으셨으나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살아오신 분, 음악을 사랑하시고 풍류를 즐기는 분이셨습니다. 더불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 항상 남을 배려하시는 분, 앞에 나서지 않으시면서 소임을 다하시고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열흘 전 즈음 저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항상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러시면서 영안실, 상조회, 장지, 장례절차 등 다 정해주셨고, 영정사진도 액자까지 직접 마련하시어 철저히 주님께 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래에 약 3년간 몸이 편찮으시면서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약간의 걱정이 있으셨다면 쪽방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장례를 치루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우리만치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와의 이별은 슬프나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마치 낫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고귀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 그 점에서 매 순간 큰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뜻을 받들어 아빠처럼 살고 싶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철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작은 물건을 파는 이들을 보면 아빠를 생각하며 얼른 손을 내밀고, 몸이 불편한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송을 보면 용기를 내어 전화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에게 평생 좋은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문> 재난



윤정희 권사

며칠간 슬픈 마음으로 지냅니다.

우리나라라서 더욱 무거운 슬픔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에 자식을 잃은 어버이들의 비탄을 어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저 깊은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망연자실합니다.

차마 뉴스를 볼 수가 없어 방황합니다.

이제 겨우 올라서는 대한민국의 불행이 세계에 알려지는 안타까움이 부끄러움도 함께 동반하는 것 같아서 더욱 분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한계성보다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바닥의 정체성이 이 사회의 부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함에 그 누가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까.

국가가, 교회가, 가정이 이루어내는 이 현상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책임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곳곳에서 불협화음만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기억합시다. 다음 세대에 물

려줄 이 나라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현실 정치가 이끌어 질 책임정치의 지도자로 이 불행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불행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필연일까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에 의한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행을 딛고 우리는 진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담함을 이겨낼 힘을 다시금 창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감으로 소망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서로들에게 격려합시다.

함께 슬픔을 나누며 새 소망으로 이 불행의 협곡을 지나갑시다.

함께 위로하며 또 다른 꿈을 통해 이 나라의 한축이 되어 발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간문〉

사랑하는 고(故) 남명희 권사에게

윤정희 권사

명희야!

깊은 마음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본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너와의 만남은 어언 반세기가 지나간 것 같네.

처음 초동교회 성동구 구역예배에서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 30대였으니 그때의 기억은 그 세월에 서로 신선한 느낌이었지.

너도, 나도 북에서 피난 온 따라지 실향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찾으며 서로의 장점에 반했다고 할까

세 아이들의 엄마들로 어려웠던 70년대를 격려하며 보낸 세월이

우리들의 추억일거야.

어려운 가운데 너의 신학대학원 입학은 보며 사실 많이 부러웠지.

그 용기는 어디서 형성된걸까.

너의 삶의 한 표면이었어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너의 학문의 추구는

참으로 경이 그 자체였어.

나도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여 늘 이런 저런 열등감에 빠져 헤멜 때

늘 너는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실 나는 너의 학구열이 참으로 부러웠어. 나도 늘 그 학구에 목말라 했지만

내게는 그 길을 열어 주시지 않으셨지.

우리는 서로 많은 책을 읽으며 지금의 소통으로 행복하기도 했지.
음악도 같은 취향의 클래식을 좋아했고, 특히 너는 합창을 좋아해서 앨토를 뽑내기도 했지.

사실 너는 사차원적인 세상에 창의적인 사고를 지녔고 요리도 창조적이었지.
그 긴 세월의 너를 어찌 다 기억할 수 있겠니?

그러나 너는 참으로 대단한 엄마였어. 어려운 가운데 진화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여 큰 열매
를 거두었고, 학수도 전문대학까지, 은화도 대학원까지 모두 너의 열공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 그래도 우리는 초동의 울타리에서 잘 견디어냈어.
그럴즈음 어느때부터 가끔은 너의 모습이 달리 보였어도 내게 닥친 아픔을 눈치채지는 못한
채 마지막 너와의 대화에서조차 그 끝을 알 수 없었음이 지금도 안타까울뿐이란다.

혼자 훌훌 다녀 보고 싶다고 한 그 말뜻을 미처 알기도 전에 어느날 날아온 너의 소식에 망연
자실할 뿐이었어.

이제 고생 다 끝내고 성가대에서 앨토를 뽑내며 행복하게 살 너였는데 그렇게 가다니.. 그리고
별써 일주기라고 너의 세 남매가 너를 기리며 초동 예배를 드렸단다.

나는 가끔은 너를 생각하며 울기도 하지. 낭낭한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어쩔 이 노후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런 멘토가 되었을 너를 그리워한다.

내 인생의 나의 친구 명희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는데 가끔 은화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너의 음성을 듣는
다. 사실 나도 언제 네 곁으로 갈지 자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어디 조금 아프면 겁부터 내는 이 노년의 세월을 그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견디어 내고 있단다.
이 노년에서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는 미련함이 큰 위로가 됨을 고백한다.

점점 작아지는 은혜덕분에 나를 다스려나가는 준비 시키는 은혜에 감사뿐임도 고백한다.

명희야.

학수, 진화, 은화, 너를 닮아 지혜롭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서 잘 지내기를
기도한다.

2022. 6. 12. 윤 정희

<기행문> 목포, 1004대교

윤정희 권사

일박이일 여정으로 목포, 1004대교, 소금 농장 등을 다녀왔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유달산 케이블카!
시시한 여행에서 멋진 여행으로 개명하여 팔 년여만에 이 여행을 기획하며 그간 모아놓은 후원금을 알뜰하게 털었다. 서른 네명의 노년들의 모습은 의기찬 모습으로 서울을 출발하며 그저 기쁜 표정으로 행복한 모습이다.

구십의 노권사님도 소녀처럼 힘찬 모습으로 이 여행을 어찌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모두도 각자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선린회 회장이신 이재천 목사님의 자상한 지역 설명을 들으며 호남의 정취에 취할 수 있었다. 역시 전라도는 아름다운 산세와 넓은 평야의 곡창지대를 펼쳐고 있었다. 다홍색깔의 흙의 아름다움도 더욱 빛내주는 오월이 아닌가. 예약된 점심식당은 영광 굴비정식이다. 그렇게 맛난 굴비는 처음 경험하며 역시 호남은 맛의 고장임을 새삼 알게 해주기도 한다. 한 마리씩 올라온 굴비, 짜지도 않아 남김없이 드시고 있는 회원들을 보니 그 또한 행복이다.

소금 농장을 경영하는 장로님의 설명과 무조건 짜게 먹지 않으려 하는 교육 정서의 뿌리로 소금의 진가를 미처 알지못한 부분을 수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처의 정경은 태양광 농장으로 변신한 모습이다. 소금 농장의 경영 부실로 태양광 농장으로 변하여 있음은 천일염 생산의 직격탄이 되어 우리는 점점 비싼 소금을 먹을 것 같다. 급변하는 식생활로 소금의 소비도 많이 줄었지만 양질의 소금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1004대교로 들어서며 탄성을 절로 내뿜는다.
하얀색의 그 다리를 넘어서며 그저 환희뿐이다. 어찌 금문교에 비교할 수 있으랴. 1004개의 섬으로 1004대교라고 이름지어진 아름다운 다리.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자존감의 충만한 행복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여기저기에서 폰의 셔터 소리가 터진다. 나이를 잊은 채 우리는 여행객의 즐거움으로 생의 환의를 맞본다. 이런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할뿐이다.

다시 버스에 올라 천사대교를 건너 목포를 향한다.

곳곳의 섬들의 정경은 아름다움이다.

전라도의 백반 한상에 그저 탄성이다. 갖가지의 수많은 종류의 음식이 계속 이어지며 미처 먹지 못함이 아쉬울 뿐이다. 전라도 고유의 묵은지에 반해 다른 어떤 것보다 맛있게 먹었다. 속소는 유달산 언저리에 있는 비치호텔, 목포의 원조 호텔이라 크지 않지만 회원들은 방키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다. 이인 일실. 우리는 목포대교가 보이는 방으로 배정되어 밤의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오랜만에 침대에 적응이 되지 않아 수고스런 밤을 보냈지만, 상쾌한 아침의 산책은 맛스런 공기를 깊이 들이 마시며 아! 살아있음에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호텔 조식 후 유달산 케이블카로 일찍 출발하여 우리 일행부터 승차하며 목포의 전역과 바다, 섬, 목포대교를 내려다 보며 그저 감탄뿐이다. 아름답다 표현뿐, 달리 무엇이랴 할 수 있으랴. 발 아래로 펼쳐진 진한 녹색의 잔치 또한 한껏 삶의 충만함을 고취시켜 준다. 목포 재래시장도 방문하여 향구의 비릿한 냄새도 맡으며 건어물 구매도 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낌은 그간 서울에서 갠혀 산 우리가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저 좋은 땅의 정기, 공기, 태백산맥 소설의 격동이 저항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역사 속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념의 시작이라면 다 떨쳐내고 싶다. 여행의 결론은 잘 살아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한껏 부풀어진 나라의 모습이 더욱 애국의 원천이 되기를 기도한다. 노년들의 용기 있는 여행으로 모두 고무되어 다음 여행을 기획한다. 파이팅! 남겨진 세월은 셈하지 말자.

2022. 5. 29.

임인년(壬寅年)을 보내며



김순종 권사

사상유래 없던 코로나 역병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을 보내면서 만감(萬感)에 젖는다.

달여가 지나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는 나는 와병 중에서도 나를 주님께 맡기면서 어두움 후에 빛을 기다리는 신념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모교회의 주일예배(영상)와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까지 큰 탈 없이 살아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읽으면서(창 6:5-6) 수천년전 그때 일어났던 이 대홍수 사건을 또 다른 책(교회사 핸드북)인 고고학자 울리박사(Dr.L.Wooley)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를 보니 성서의 내용과 일치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나타난 인간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부패한 삶을 살아온 무질서의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한 가족(8인)들 만을 구원하시고 150일 만에 홍수 상태가 끝을 보면서 육지로 내려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도 커다란 오색 무지개로 응답하시면서 앞으로는 사람 사는 이 지구에 다시는 홍수로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 9:11)

성서(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죄가 있는 곳에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죄지은 자들도 회개하면 영생의 삶으로 갈 수 있음을 언약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 많은 세기(Century)가 지나면서 BC1600년경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만해진 바벨론의 제왕(King)들이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벨론 지역은 권력의 중심지이며 문화의 센터였고 이 지역을 지배했던 함므라비왕(King Hammurabi ; BC 1728-1688)과 느브갓네살왕(King Nebuchanezzar ; BC 605-562)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데서 야기된 사건입니다.

바벨탑 제왕들의 권력시위가 지나 신약의 메시아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순절의 이야기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오순절이 곧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11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에 흐트러져 사는)자기들의 방언 (사투리)으로 대화하면서도 서로가 소통 화해가 됐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곧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을 한해에 저희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당신의 권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인년 세모에 접어들면서 돌이켜보니 그간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교우들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에 안겼으니, 주님!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 하옵나이다.

Almighty God!

I beseech Thee for their heavenly rest and His grace be with them always until we meet again! In Jesus name Amen!

야기 예수 나심을 축하드립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신앙간증〉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심을 본 받아서



박민균 권사

저의 신앙생활의 역사는 초동교회 역사 보다는 짧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니기 시작하였으니, 초동교회와 오랜 관계와 인연으로 이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초동교회에 다니셨고, 어린 저는 교회가 멀다 하여 초기에 초동교회를 다니다 마포로 이사하면서 초등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앙생활은 마포 신덕교회(담임목사 정승일 목사)에서 보냈습니다. 늘 어머니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중, 고등부때에는 총무, 회장직을 맡으며 전도, 봉사활동, 성경공부,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 신앙수련회 등 각종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암송대회 때 암송하였던 시편23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편23편4절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등학교 3학년 진학시 아버지께서 신학대학을 권유 하였지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때 1주일 동안 C.C.C(한국대학생선교회, Campus Crusade for Christ) 정동소재, 전도, 파송, 주님께 헌신, 구원의 헌신을 모티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신앙수련회에 참석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최고의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사분께서 “당신은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까?”라는 첫 질문에 그때 까지만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언뜻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상에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못보냐고, 왜 잡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동안 설교와 통성기도로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점차 뭔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면서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영접하는 건가? 그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신학대학을 가지않은 게 후회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모든 신도들 앞에서 338장 찬송가 “내주를 가까이 하게함”을 부르며 통성의 기도를 하며 신앙간증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내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수련회 때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빠졌던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수련회 참석했을 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C.C.C에서 겨울방학 행사로 40일간 금식기도회 하는데 일주일만 참석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나의 신앙생활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 이었는데 참석할 마음이 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후, 주일을 안 지키게 되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훈련받을 때 외출, 외박이 안되어 주일 종교행사를 할 때 교회참석 인솔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신앙에 대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장교로 임관후 영외거주를 하다보니 다시금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회 다시 나오도록 기도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말씀이 귀에서만 메아리로 반복 되었습니다. 결혼 후(초동교회에서 결혼)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나

오라고 하셨는데도 내 신앙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직장 핑계되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년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은 특별한 날만 마지못해 어머니, 아버지와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다니셨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구역예배, 식당봉사, 각종행사, 권사님들과 한나회 친교 등) 그래도, 항상 저를 교회 나오게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도 이 찬송가를 항상 들려 주셨습니다(돌아온 탕자 이야기 포함)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후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게 되었는데, 연로하셔서 지하철로 교회 다니시기가 힘들어서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앞에 모셔드리고 저는 바로 유턴하여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었던 교회 신앙생활을 30여년동안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께서 예배를 마치고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셔서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가보니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주위사람들이 경찰서로 모시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 이제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일예배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항상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정식으로 초동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30년 후 교회출석)

드디어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 한거지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초동교회를 1년 6개월을 행복하게 다닐즈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아버지와 같이 교회 다니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직장과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한다는 말씀이 아직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전에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2개월 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로 침상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평생을 몸 담으셨던 초동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과 집사님, 교우들을 그리워 하시면서 침상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두번째 시험을 주시

는구나. 이제 혼자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그동안 교회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현정 권사님께서 교회만 왔다 갔다하지 말고 조금 일찍와서 성경통독에(변정수 목사) 참석하고, 야곱회에도 참석하여 친교를 하라고 해서 성경도 읽고, 야곱회도 참석 하게되고, 예배 성경봉독도 하고, 새가족안내도 하고 방송부장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이 발전하게 된거지요. 주님께서 이제 나를 쓰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야곱회 입회하고나서 총무를 맡게 되었고, 부족하나마 야곱회 회장을 맡게되는 과정이 앞에서 얘기했던 고등부, 청년부 때 총무, 회장을 하게되는 과정같이 30년전의 데자뷰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신앙수련회에 참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한번 그때의 믿음 충만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드리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어머니 또한 오랜 병상 생활을 하시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상황으로 어머니 면회가 안되고, 저 또한 직장암 판정을 받아 2년간의 교회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번째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로 모든 항암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초동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권사의 직분도 받게 되었고,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께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만나서 함께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그동안 지나온 나의 교회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경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하시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평생 초동교회에 모든 신앙생활을 바치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깊은 신앙심을 본받아서 이제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더욱 건강하게 항상 범사에 감사드리는 초동교회의 신앙인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



뉴고려병원 원목
이천광 목사

사람은 사회적동물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가정생활이나 학창시절, 군대생활, 직장생활하면서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되고 꿈과 이상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시절 나는 고려대 사학과 교수이신 김성식 교수님, 김준엽 교수님, 김정학 교수님 등 한국 사학계에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아 사회정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장했다.

그러면서 종교생활에서 조향록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군대생활 중에 나의 인생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조주태 장군님을 만났고, 직장생활하면서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된 현 모그룹 회장님을 만나는 등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대부분 큰 스승 밑에서 자라고 공부한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렇다.

이와 같이 나는 위에서 언급한 세분을 통하여 내 인격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신앙생활에서는 초동교회 담임목사이셨던 조향록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분의 대부분 설교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경천애인(敬天愛人) 정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영향으로 내가 회사 CEO에서 은퇴하고 목사로서 뉴고려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원목으로 13년째 봉사하고 있는 것도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이다.

둘째, 군대생활 시절 당시 조주태연대장을(예비역 소장으로 전역) 만난 것이 나의 좌우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4년 경 내가 근무하던 곳은 최전방 대성산에 있는 12사단 52연대였다. 그곳에서 연대장 당번을 하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연대장 자녀들이 사모님과 함께 연대장 숙소를 방문하곤 했다. 내가 틈만 나면 아이들을 돌보아주었는데 한 번은 대성산에서 내려오는 큰 개천에서 아이들 세숫물을 퍼다 주었는데 연대장님이 “이 병장 그렇게 물을 낭비하면 안 돼” 하시기에 무심코 “아니 흘러가는 이 많은 물 중에 큰 세숫대야에 물 떠 온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대답하니 흐르는 물도 낭비하면 안 되고 아이들이 쓸 만큼 물을 떠다줘야 아이들이 절약을 배운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흐르는 물도 절약해야 한다는 절약정신을 갖게 되었다.

또 방학이 끝나면 가족들이 원주로 돌아갈 때 연대장 1호차로 가는데 출발 전에 차에 승차한 사모님과 아이들 다 내리라 하시고 여기 저기 지휘봉으로 뒤져 점검하며 쌀 한 톨, 멸치 하나라도 있으면 다 내려놓고 출발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전방의 지휘관들은 쌀 팔아먹고 휘발유 팔아먹고 나무 베어 팔아먹는 부정이 더러 있었는데 조주태 연대장의 정직성은 가히 모범 중의 모범으로 나의 평생에 정직의 모범을 배우게 되었다.

또 한 번은 아침 식사할 때 사단장이나 군단장에게서 전화 오면 똑바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전화기를 상대방이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사 받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직장 생활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는 모 그룹 회장님을 한 10년 동안 측근에서 모셨는데 그 분이 경영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처리하고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경영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고, 그 후 CEO로 한 20년 간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2개나 경영하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 군대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향록 목사님, 조주태 장군님, 그리고 모 그룹 회사 회장님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현대의 물질문명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정신문명은 이에 비례하지 못하고 타락상이 극에 달해가고 있다. 황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바른 삶의 가치관을 상실해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좋은 이들의 만남은 자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등 좋은 이들을 많이 만나 우리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기 간절히 염원한다.

우리집 가훈

뉴고려병원 원목
이찬광 목사

어느 집이든지 가훈이 있다. 가화만사성 또는 사필귀정 등등 자기 집에 맞는 가훈들이 있다. 우리 집도 얼마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자”가 가훈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선을 다하자는 것은 맞는데 무엇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생겼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세 가지로 설정했다.

첫째는 항상 감사하자

그 대상은 하나님, 부모님, 이웃들에게 감사하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즉 햇빛, 공기, 구름, 비 등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무한히 공급해 주신다. 또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는데 이웃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감사한 생활을 하다보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된다. 요즘 복음성가에 “은혜”라는 찬양곡이 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와 같이 감사 속에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둘째는 항상 베풀자.

그 대상은 이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약자를 도우며 환자를 돌보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가장 선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베푸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25)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17)는 말씀이 있다. 항상 이웃에게 베풀 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족하게 되어 진다.

셋째는 항상 배우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배우고 사는 존재이다. 특히 현대인은 100살까지 생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일본의 유명한 경영자 마쓰시다 고노게스도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지만 늘 배우고 공부하여 “내쇼날” 상표의 창업자로 산하 570개 기업을 일구었다. 또 세기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도

“교육은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라고 하면서 96세 작고할 때까지 공부한 사람이다. 또 우리는 삼성의 고 이진희 회장을 생각해볼 때 어떻게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세계일류 기업이 되었을까? 이진희 회장의 3대 경영 철학은 1) 절박함, 2) 지독한 공부, 3) 깊은 생각 이 3가지인데 그 중에 지독한 공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는 20대부터 지독한 공부를 하였다. 그는 배울 사람이 있다면 서른 번이라도 찾아가 배워야 하고 그 배움 속에서 선지자(先知者)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터득할 때까지 다섯 번이고 왜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황창규 전 KT회장도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부는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내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도 배우고 능력 있는 자를 쓰신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430년간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의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모세가 인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 시에는 오합지졸 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40년간 어떻게 이끌어 왔을까? 그 능력은 모세가 40년간 애굽 궁정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공부했기 때문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갔던 것이다.

또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있다. 그는 그 당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로마시민으로 있으면서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많은 공부를 한 당시의 엘리트였다. 그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 통달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거침 없이 기독교를 전할 수 있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도합 66권인데 구약의 39권 중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며 신약의 27권 중 13권을 바울이 썼다. 이와 같이 많이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집 가훈을 이야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베풀고, 항상 배우자” 가 우리 집 가훈인데 독자 분들께서는 더 좋은 가훈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잃어버린 고향



서동헌 집사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읍 행정9번지는 내가 태어난 첩첩 산골이다. 묘향산맥과 낭림산맥에서 발원한 남천과 북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위치한 강계는 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었다. 지금은 자강도 강계시로 그 행정명칭이 바뀌어진 곳이다. 동쪽에는 낭림산맥, 남쪽에는 적유령산맥, 북쪽에는 강남산맥에 둘러싸인 이 분지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독로강이 강계시가지를 휘돌아 위원에서 압록강으로 빨려 들어간다. 제1의 고향 강계에 대한 기억은 전무하다. 우리 식구들은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모두 3.8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남겨진 강계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이다. 그 시절만 해도 개성 상인들이 3.8선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서울로 인삼을 팔기 위해 3.8선을 넘나들던 시절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어머니의 결혼반지를 경비병에게 빼주고 그의 친절함(?)을 받으며 여유있게 3.8선을 넘어왔다. 큰 아버지께서 그 때 유행하던 장티푸스로 급사하시는 바람에 우리 식구들은 시골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수정동(수청구지)마을은 내 제2의 고향이 되었다. 그곳에서 6.25를 겪었고 유년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의 고향에 대한 추억은 수정동 마을에 머물러 있다. 다음(Daum)창에 '수청구지 왕 소나무'를 치면 보호수 왕 소나무 가지사이로 언덕위에 고

즈넉하게 자리 잡은 시골집이 보인다. 이 나무는 선조 할아버지께서 심은 나무로 동네 한복판 밭가에 우뚝 서 있다. 오래 전에 시에서는 이 소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해 오고 있다. 이 왕 소나무 밑에는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있는데 약수에 해당되는 아주 질이 좋은 샘물이다. 워낙 수량이 풍부하여 온 마을의 식수는 물론 빨래터까지 마련되어 있어 한 겨울에도 동네 아낙네들이 이 샘가 빨래터에 모여 눈을 맞으며 빨래를 하던 샘이었다. 아무리 가물어도 수량에 변화가 없고 일년 내내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김(수증기)이 모락 모락 피어 오르는 질 좋은 청정수가 팔팔 쏟아져 나오는 샘이었다. 왕 소나무 밑으로 들녘을 지나면 저수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는 넓은 간천지가 펼쳐져 있다. 간천지 중앙에는 수문을 통해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골이 길에 뻗어 있는데 이 물골은 어린시절 나의 낚시터였다. 누런 벼들이 고개속인 가을들판을 달려 대나무 낚시대를 메고 물골에 이르러 들물이 되기를 기다린다. 들물과 함께 낚시를 담그면 노가리만큼 커다란 망둥어들이 다투어 물어준다. 들물이 계속되는 동안 뒤로 밀리면서 낚시질을 하면 망둥어, 깔대기(농어새끼) 그리고 뱀장어까지 다투어 올라와 망태기를 가득 채워준다. 미끼는 농수로에서 잡은 송사리가 전부이다. 들물이 어느정도 차 오르면 고기들도 넓게 흩어져 입질이 끊기게 된다. 미련 없이 낚시질을 끝내야 하는 시간이다. 한 망태기 그득한 물고기들을 무겁게 들고 집에 돌아오면 온 식구들이 모두 반가워한다. 그 날 밥상이 어느때보다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벼베기가 끝난 논에서 작은 구멍들을 찾아 우렁이를 잡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메뚜기를 쫓아 다닌다. 이른 새벽 논 물꼬에 나가보면 누르끄름한 커다란 참게가 두발을 쳐 들고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다. 운이 좋은 날에는 큼지막한 참게를 열 마리가까이 잡을 때도 있다. 이 참게는 참으로 맛있는 반찬재료로 등장하게 된다. 절구에 깨끗하게 씻은 참게들을 넣고 곱게 절구질하여 달걀과 함께 새우젓을 비롯한 양념을 넣고 찜을 하면 그 맛이 기가 막힌 반찬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논 우렁이 된장국과 참게찜의 맛은 잊혀지지 않는 별미 중 별미로 내 기억속에 남아 있다. 가을들판과 산속은 언제나 풍성하였다. 산에는 개암, 머루, 으름 등 잘 익은 열매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부자 동네는 아니었지만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서로 나누며 따뜻한 정(情)이 오가는 정겨운 고향 마을이었다. 시골집 마당가에는 커다란 죽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는 까치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까치들이 자르러지게 울부짖기에 나가 보니 커다란 먹구렁이가 까치집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었다. 까치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나무 등치를 타고 까치집까지 올라간 것이다. 나는 길다란 장대를 휘둘러 겁도 없이 그 큰 구렁이를 후려갈겨 땅으로 떨어 뜨리고 작대기로 두들겨 죽여 버렸다. 까치들의 울부짖음이 하도 절박해서 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까치들은 고맙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며 짹짹거리며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까치는 보은을 한다는 옛 전

설에 은근히 기대를 걸어보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기도 하였지만 그 후 까치들은 나무 밑으로 퐁만 싸대어 나를 골탕 먹였다. 까치똥은 쓸어 밑에 있는 부추 밭으로 치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죽인 구렁이는 닭장 속으로 끌고 가서 헛 가마니로 덮어 놓았다. 어린 시절 나는 뱀을 보면 무조건 때려 잡아 닭장 속 가마니 밑에 집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면 가마니 속에서 커다란 구더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닭들은 그 구더기들을 다투어 남김없이 쪼아 먹었다. 이렇게 뱀에서 나온 구더기들을 먹은 닭들에게서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 닭의 벼슬이 선명하게 붉어지고 온몸 털에서 윤기가 흐르며 눈들은 사나운 빛으로 번쩍이고 온몸에 활기가 넘쳐 흐르게 된다. 이런 닭들을 시간나는 대로 뒷산의 밤나무 숲으로 내몰면 그곳에서 닭들은 땅을 헤집으며 지네들을 잡아 먹는다. 이 뱀과 지네를 먹은 닭들은 우리 식구들의 몸 보신에 큰 역할을 해 주었고 그 맛 또한 일품이었다. ‘자연보호’, ‘동물애호’ 같은 개념은 아예 없었던 시절이었다. 집에서 기르던 멍멍이도 가차없이 잡아 먹던 시절이기도 하였다.

나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만 고향에서 보낼 수 있었고 가을의 추억은 퇴색해지고 말았다. 망둥어는 본래 가을 한철의 낚시였다. 붕어낚시도 했지만 식구들은 민물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가을 망둥어 철을 기다리게 되었다.

수문 밖의 바다쪽은 썰물이 되면 까마득한 갯벌이 펼쳐지고 칠게와 짱둥어들이 그 드넓은 갯벌을 뒤덮어 버리고 수문 안 쪽 수로가의 갯벌에는 붉은 집게발을 가진 농게들이 꽃발을 만들어 놓는다. 나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이 갯벌에서 바닷물이 들어올때까지 온갖 놀이와 게, 고동, 조개들을 잡으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들물에 밀려 쫓겨 나오곤 했다. 온몸에 갯벌 진흙을 먹칠하여 햇볕에 타는 것을 방지하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점심도 굶고 놀다가 부모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참으로 재미있게 그리고 허기지게 잘도 놀았다.

중부 보령 화력발전소가 이 청정한 바닷가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내 고향은 폐허화되기 시작하였다. 옆친데 덮친격으로 화학비료와 농약농사가 도입되면서 논과 들판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상스러운 현상은 정(情)으로 얽혀 살던 고향 사람들이 점차 살벌해지기 시작하더니 따스했던 인심도 변해 버렸다. 고향 사람들의 마음도 시들어가는 자연과 함께 황폐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각종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하나 둘 고향을 등졌다. 40여가구가 살던 마을에 지금은 18가구만 남게 되었고 그것도 빈 집과 1인 가구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라진 마을에는 어린 아이들이 없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친지도 오래 되었다. 나의 발길은 고향마을에서 점

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미국의 작가 토마스 울프(Thomas wolfe)의 고향과 관계된 작품 제목이 떠올랐다. ‘천사여 고향을 바라보자(Look Homeward Angel)’와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You can’t go home again)’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류와 같이 현대문명은 정겹고 포근한 우리들의 고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피폐해진 영혼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삶은 갈수록 인간다운 정겨운 행복을 상실해 가고 있다. 우리의 정(情) 문화에는 영혼이 순수하게 서로 교류하는 아름다운 ‘얼’이 깃들어 있었다.

「영혼의 교류가 차단된 삶」

그래서 우리들은 순수한 행복을 잃어 버렸고 갈수록 메마른 삶 속으로 내몰려 버렸다.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그보다도 소중한 고향의 정신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폐허화된 고향.. 연보라 순비기꽃(꽃말-그리움)이 그 순한 향기를 뿜어대던 바닷가에서 여치들이 울어대고 함박꽃이 곱게 피어나던 산골짜기까지 높은 고압선 철탑들이 위압적으로 늘어서 있다. 이제는 여치도 순비기꽃도 함박꽃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청정했던 고향마을은 시커멓게 뿜어대는 석탄 분진을 뒤집어쓰고 괴롭게 신음하고 있다. 이제 나는 두 고향(제1,2고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제 1의 고향 강계는 일인독재의 검은 이념의 구름 밑에 깔려 죽은 듯이 널부러져 있어 갈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고, 제 2의 고향 수정동 마을은 회복될 수 없는 폐허화에 깊고 위독한 상처를 드러내놓고 신음하고 있다. ‘You can’t go home again’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고향을 잃어버린 공허한 내 마음에 쓸쓸한 늦가을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내 영혼을 일깨워주고 위로해 주는 시편의 노래가 조용히 내 가슴속에 울려 퍼져 나가고 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
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

(공트)
성극을 도와 준
고려인 율여 이야기



박정근 권사

필자는 사년 전에 카자흐스탄의 사막 지역에 가까운 도시 크즐오르다에서 일년 동안 연구원으로 지낸 적이 있다. 삭막한 도시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어서 한국교회가 개척한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과 성극을 도와주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특히 그 교회에서 성극을 연출하는 일은 매우 힘든 사역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고려인과 카작인들에게 성극을 가르치고 연출하는 일은 소통의 어려움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 코리언 드림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율여를 소개받아 한국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자임했다. 그녀를 보자 성극 연출에 도움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율여에게 한국어를 배울 겸 배우로 활동을 하라고 권하였다.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율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었다. 필자가 율여에게 매주 교회에 참석하라고 충고한 것은 순수하게 장목사의 선교를 돕겠다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배우들에게 연출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한국어 연습을 할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였다.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한국어로 연출하는 필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율여를 통역으로 쓰는 경우 필자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우

선 성극에 필요한 통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성극을 돕는 율여에게 한국어를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하나는 젊은 고려인들에게 선교를 하려는 장목사를 돕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세밀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율여가 통역 역할을 받아들이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 내심 만족스러웠다. 율여는 배우들에 대한 정완의 주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통역자로서 만족하지 않았다. 대본의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배우들에게 상황을 논리적으로 바로 잡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필자가 율여의 통역만으로 대사의 미묘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눈치가 빠른 율여가 연출의 의도를 상당히 근접하게 이해하여 전달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기도 했다. 교회의 초심자에 불과한 그녀가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되었던 것이다.

율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막을 올리기 위해 필자는 연습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빛에 쫓겨 게으름을 부리던 티무르도 율여에게 설득이 되었는지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좀 모자란 듯 보이는 목동이지만 신의 선택을 받아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는 행운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성경의 동방박사의 일화를 필자가 각색했었다. 율여도 바보 목동이 짝사랑하는 여인으로 출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연극을 해본 가락이 있어서인지 연극적 문맥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는 배우들에게 충고도 곁들였다.

성극연습이 빠른 속도로 완성을 더해가자 교회에 대한 율여의 자세도 날로 달라졌다. 세상에서는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자가 앞서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바보 같은 목동이 하늘나라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까. 사실 지금 성극에 참여하고 있는 고려인들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돌아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허덕이고 있다.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카작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한국에서 이삼년만 고생하면 평생 기반을 잡을 수 있다고 파다하게 소문이 나있다. 고려인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선을 대어 한국 비자만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필자는 연습에 몰입하고 있는 율여의 눈을 직시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율여의 마음에서 돈 냄새가 풍기는 코리안 드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다. 티무르는 바보 목동의 역을 맡았다. 율여는 티무르가 사랑하는 동네 처녀 역을 맡고 있다. 그녀는 바보 목동에게 연민을 느끼고 왕따를 당하는 그에게 보호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연민은 바보 목동에게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바보가 원하는 것은 연민을 넘어선 사랑이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바보 목

동이 형편없는 겁쟁이라고 알고 있다. 울여는 진정 바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성공을 바라는 코리안 드림의 시각에서 바보 목동은 무능한 사람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모자란 인간을 결코 사랑할 수 없으리라.

울여의 실리주의는 사랑을 갈구하는 바보 목동에게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연민을 느끼면서도 하나의 여자로 다가설 수 없는 안타까움이 묻어나왔다. 울여는 조금씩 여자가 되어갔다.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울여의 마음을 필자는 느끼고 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는 결코 여인이 아니듯이 그 문에 기대어 바라보기만 하는 울여는 완전한 여인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필자는 미완에서 성숙으로 가는 여인의 문을 열어주고 싶었다. 성극 스토리가 조금은 우화적인 이야기이지만 대본 속에는 분출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넘실거리고 있지 않은가.

목동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내로 처녀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울여는 여전히 가슴을 움츠리고 사내를 보듬지 못한다. 성극의 작가는 바보 목동이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사내다운 남자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양들을 향해서 송곳니를 드러낸 채 달려오는 늑대를 막아낼 수 있는 용기가 거룩한 영성만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출은 목동의 영성적 변화에 사랑의 욕망도 가세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하튼 예수 탄생을 목격한 바보 목동은 한 순간 백팔십도 변모한다. 울여는 사내다운 티무르의 변모에 여인의 내음을 발산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가슴이 크게 용기되면서 매력적인 여인으로 탈바꿈한다.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성징을 삭제한 것은 성서작가들의 엄청난 실수라고 연출은 분석한다. 비록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수는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태어났으니 말이다.

그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큰 소리를 치며 바보 목동을 무시하던 다른 목동들은 도망치기에 바쁘다. 늑대를 때려잡았다고 허풍을 떨던 목동이나 그를 비웃던 조무래기 목동들은 모두 도망을 치기에 바쁘다. 티무르는 변화된 목동으로 성숙했기에 늑대에 맞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한다. 사나운 늑대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의 근육에서 힘이 느껴진다. 바보 목동에게 중성적인 친밀감을 보이던 처녀역의 울여는 이제야 여인의 육감적 매력을 느낀다. 이런 전폭적인 변화는 묘한 극적 아이러니 효과를 낸다. 엄청난 반전이기 때문이다. 울여도 반전을 보여준 바보 목동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녀도 대지적 여인으로서 조금씩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아가는 모양이다. 그것은 결코 중성적 성모 이미지가 아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성극공연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 교인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다. 필자는 박수에 답례를 하기 위해 무대 앞으로 나가면서 울여에게 고맙다는 눈짓을 했다.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맙구나 울여야! 네가 있어서 이 성극이 성공을 거둔 거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중고 자전거만은 아니란다. 난 코리안 드림이 아닌 바보 목동에 대한 너의 사랑을 일으켜 주고 싶었던 거야. 필자는 속으로 기도처럼 읊조렸다. 이제 울여를 남겨두고 카작을 떠나가도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여가 꿈꾸는 한국은 결코 인간답게 살기에 쉬운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쓴 웃음을 지었다. 울여는 그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장목사는 필자의 연출에 감사의 선물을 하겠다고 나서더니 커다란 그림틀을 가지고 무대 위의 정완 쪽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선물포장을 풀어서 큰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필자는 깜짝 놀랐다. 그림 속에는 바보 목동을 닮은 필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성극을 연출하면서 그도 모르게 바보를 닮아갔던 모양이다. 어떤 수입도 되지 않는 성극에 한 학기를 바치려면 바보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며 목이 매어왔다. 결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리라. 교회당 저쪽에서 그의 눈물을 보았는지 울여가 눈물을 닦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어를 제대로 못 가르쳤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바보의 가치를 심어준 효과이리라. 정완은 손을 들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손을 흔들었다.

교인 모두가 울여가 되어 환송하는 교회 문을 나서며 필자는 어둠 속에서 별빛을 보았다. 순간 필자는 가슴 한 가운데가 텅 빈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동안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푸른 보리밭을 닮은 여인이 휙 빠져나가며 손을 흔들었다. 막 피어오르는 봄꽃 같은 울여가 수줍게 주춤거리고 있었다. 이 사막 도시에서 내게 보여준 너의 작은 연정이 나를 견디게 했구나. 이제 나도 가로수가 혼란스럽게 바람에 흔들리는 크즐오르다 거리로 너를 내보내야겠다. 울여는 더 이상 앓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일 듯 말 듯 환상 속에서 떠나가는 필자에게 제법 육감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필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의 전율을 맛보았다.

이제 천국의 문을 열고나가 한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교회 문 밖에서 하늘을 보니 별무리가 제법 많아졌다. 그 아래로 어둠이 사랑에 빠진 여인의 살내음처럼 질게 깔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한국어 교육을 맡기고 간 안선생의 불만스러운 눈빛 같은 별자리가 빛을 내다가 구름에 가려져 사라졌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과 어지럽게 뒤섞인 필자의 한국어 교육이 못 마땅한 모양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제 안선생의 차가운 눈빛도 외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슴에서 느껴졌다. 그는 차가운 눈빛들이 늑대처럼 으렁거리는 한국으로 떠나가리라. 아무리 그곳이 지옥문일지도 돌아가야 한다는 자조가 필자의 입속에서 흘러나왔다.

옛 스타와 함께 추억 속으로

- 오헨리의 단편집 O.Henry Full House



박수신 권사

윌리엄시드니포터는 미국의 소설가로 ‘오헨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62년 로스 캐롤라이나 그린 버러에서 태어난 그는 걸작으로 선정된 원제 동방박사의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과 마지막 잎새로 독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를 거치면서 1940년 48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약 300편이나 되는 많은 작품을 펼쳐내면서 단편소설의 대가로 인정을 받게 된다. 옴니버스(Omnibus)-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짧은 이야기를 여러 번 엮어내는 형식으로 묘사된 작품을 예리하게 파헤쳐 감미로움으로 독자들에게 접근하게 된다. 오헨리의 풀하우스는 5편을 모두 합쳐도 2시간짜리 영화! 한 사람의 감독이 연출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할리우드에서도 명망 높은 5명의 감독이 한 작품씩 나누어서 연출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작비가 소모될 수 있다고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각자가 지난 재능을 살려 색다른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작품의 나레이터(Narrator) 해설을 주관하는 분노의 포도, 에덴의 동쪽으로 잘 알려진 노벨 문학 수상자인 소설가 존 스타인벡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제작진에서 수락하게 된다.

- 나팔소리 - 헨리 하서웨이 감독
- 크리스마스 선물 - 헨리 킹 감독
- 붉은 추장의 몸값 - 하워드 혹스 감독
- 경관과 찬송가 - 헨리코스터 감독
- 마지막 잎새 - 진 네글레스코 감독

위의 5명의 감독들은 꽤나 인기있는 스타들을 출연시키면서 할리우드 영화가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된다. 1952년 20세기 폭스영화사에서 발표한 오헨리의 풀하우스 영화가 국내에선 인생의 종착역이란 다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목으로 개봉 되었을 때 막장에 몰린듯한 느낌을 주는 종착역 보다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공감이 될 수 있다고 평론가들의 예리한 비평도 있었다. 원제 동방박사의 선물은 오헨리가 190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헤롯왕 시절 유대땅 베들레헴에서는 구세주가 탄생하셨고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의 별을 확인하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려고 3명의 박사들은 각자가 준비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말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께 왕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무릎꿇고 엎드려 경배했다. 동방박사의 선물은 저자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 드린 선물에 대한 귀중함을 상상하면서 가난한 젊은 부부의 애절함이 깃든 선물을 서로에게 주기 위해서 도전한 감상적인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제목으로 집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화 크리스마스 선물은 헨리 킹 감독이 연출하고 청순함을 자랑하는 신부역인 텔라로 출연한 진 크레인과 남편 짐으로 함께 공연한 팔리 그레이저. 1달러 87센트 그중의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이다라는 말로 영화가 시작된다. 젊은신부 텔라가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가격을 에누리하면서 부지런히 모은 돈 한 번, 두 번 자꾸만 세어보아도 1달러 87센트 그대로다. 당시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던 유행어가 되기도 한 1달러 87센트!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짐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데 가난한 현실의 환멸을 느끼면서 텔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잠시 침묵하던 텔라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 할 것 같은 충동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러던 중 텔라는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찾아낸 것처럼 흥분한 기분으로 눈가에 힘을 주면서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다.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린 자신의 머리카락이 마치 작은 폭포처럼 물결치듯이 찰랑거림을 보면서 얇은 미소를 짓는다. 텔라는 재빠른 동작으로 낡은 재킷을 걸치고 갈색모자를 쓰고 치맛자락을 펄럭이면서 거리로 뛰쳐 나간다. 텔라가 점포에 들어서자

몸집이 뚱뚱하고 무뚱뚱하게 생긴 여주인과 마주친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라고 말하자 여주인은 델라의 머릿결을 자세히 살펴본 뒤 20달러에 사겠다고 흥정을 끝낸다. 델라는 시계포에서 금색으로 장식된 시계줄을 보면서 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 21달러에 구입하고 남은 돈 87센트를 챙기면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짐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시간을 볼 수 있겠지, 낡은 시계줄 때문에 누군가 볼까봐 시계를 꺼내지도 못했던 짐!’ 델라는 짧게 변한 머리카락을 주의깊게 보면서 언제나 소박한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드리는 습관으로 경건한 자세로 짧은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 지금도 짐이 나를 사랑해 줄까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쁘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날이 저물 무렵 짐이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눈다. “짐, 당신에게 선물을 안주면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 내 머리카락은 다시 잘 자랄 거야.” 멍한 상태로 델라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짐은 감동이나 한 듯 델라를 꼭 껴안아 준다. 짐은 주머니에서 꾸러미 하나를 식탁 위로 툭 던지면서 델라에게 “나를 오해하지는 말아줘. 당신의 짧아진 머리카락과 스카프를 쓰고 있어도 나는 결코 당신을 덜 좋아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델라는 꾸러미 속에 있는 선물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브로드웨이 상품 진열장에서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보석이 박힌 고가의 머리빗 세트였다. 지금은 머리카락이 없어 사용할 수가 없지만 갖고 싶었던 짐이 준 선물을 가슴에 꼭 품었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보인 귀중한 시계를 짐은 한동안 만지작거리다가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하기에 시계를 팔아 머리빗을 구매하게 된 것이다. 델라는 흐릿해진 눈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한다. “짐, 내 머리카락은 정말 빨리 자랄꺼야! 그리고 시내를 뒤희고 다니면서 구입한 시계줄이야. 참 예쁘지? 기쁘게 받아줘.” 시계가 없던 짐은 양손을 허리 뒤에 대고는 말없이 웃었다. “델라 고마워. 우리들의 선물이 서로 엇갈려 당장은 사용할 수가 없지만 우리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 짧은 영화 크리스마스선물이 아름다운 여운을 남긴채 막을 내린다.

오 헨리는 가난한 젊은부부의 애정 어린 선물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의 목적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술한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방박사의 선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참된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초점이 맞추어진 듯 하다. 선물에 담겨진 귀중함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묘사한 것이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성탄절이 가까워 질때면 1947년 조지 시튼 영화감독이 만들고 부모역으로 출연한 모린 오히라, 존 패인을 비롯 에드몬드 그웬이 산타클로스로 등장하고 1962년 초원의 빛과 1967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잘 알려진 여배우 나탈리 우드가 9세 때 아

역으로 열연한 명작 47번가의 기적과 1843년 출간된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크리스마스 캐럴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명작들이 첫 번째 화제로 손꼽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필자인 내가 20대 초반일 때 잠시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다. 큰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기자기한 활동을 하면서 남녀가 잘 어울려진 우리 친구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냥 신이 났고 문학, 영화, 음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고 값진 생활을 보낸 것 같다. 크리스마스를 한 번 맞이하려면 오랜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당시에는 1년이 왜 그렇게 지루했는지..! 예능이 활발해진 활약으로 발전하였다는 요사이 소박함도 없고! 낭만도 없고! 우리들의 생활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 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오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수 많은 캐럴송과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손에 손에 케익을 들고 다니면서 아기 예수께 축하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다.

영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가수겸 배우인 Bing Crosby와 가수인 Rosemary Clooney의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경쾌한 멜로디의 실버벨(Silver Bells)은 지금 감상해도 멋진 캐럴송으로 인정하게 된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중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총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버벨, 실버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클래식(Classic), 팝송(Pop song) 그리고 우리의 가곡과 동요! 나는 음악을 참 좋아한다. 기쁘나 슬프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산이나 바다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 만나던지 합창으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새벽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행은 통행금지 해제로 들뜬 기분이 되어 한 장소에 모였다. 가끔 한 대씩 지나가는 자동차! 세종문화회관도 없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없고 정부청사도 없을 때 발목까지 차오른 하얀 눈을 밟으면서 광화문과 중앙청을 지나서 효자동 쪽으로 가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맛보면서 어느 권사님 댁 앞에서 새벽송을 찬양하고 따뜻한 떡국으로 잠시 몸을 녹인 후 또 다른 성도님 가정을 향해서 재잘거리고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다.

1907년 발표된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는 다른 작품과는 달리 반전의 묘미를 잘 표현한 걸작으로 인정하게 된다. 영화로 제작하게 되면서 진 네글레스코 감독이 연출하고 저자가 집필한

원본에는 주인공인 두 여인의 관계가 친구로 등장 하지만 영화에서는 자매로 출연하게 되는 이색적인 캐스팅(casting)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노익장을 과시한 연기파 배우인 그레고리 라토프가 늙은 화가로 열연한 애절함이 깃든 작품이다.

뉴욕시에 위치한 그리치니 빌리지 마을은 길이 복잡하게 엉켜 있고 주위 환경이 매우 지저분해서 집세가 저렴하다. 그래서인지 가난한 이방인들과 하루 급 화가들이 모여들면서 하나의 집단으로까지 형성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빌리지 마을은 많은 결핵 환자들이 있으니 주의할 것을 강요할 정도다. 3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꼭대기층에 두 자매는 화실겸 생활터전을 마련하면서 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 무명화가 지망생인 동생 존시로 출연한 앤 박스터는 심한 폐렴 환자로 사경을 헤매이고 있다. 언니 수잔으로 함께 공연한 진 피터스가 정성껏 간호하면서 위로해 주지만 아랑곳없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 덩굴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의 생명도 끝이 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잿빛 눈썹을 짙룩 거리면서 덩수룩한 차림의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언니 수잔을 불러 내면서 하는 말은 존시가 병에서 완쾌될 확률은 열의 하나 정도로 가망이 없다고 체온계를 흔들며 대면서 애처로워 한다. 의사가 떠난 후 수잔은 작업실에서 병에 시달리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증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침대쪽으로 가보니 존시가 나지막한 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쳐다보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다. 열둘 그리고 잠시 일어나더니 열, 아홉, 여덟, 일곱을 거의 동시에 세면서 또다시 창문쪽을 바라본다. 무엇을 세고 있는 걸까, 6미터 쯤 떨어진 곳에는 텅빈 담벼락이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언니 수잔은 궁금해서 물어본다. “뭐 하는 거니?” 존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여섯하면서 차가운 모습으로 말을 한다. “언니, 처음에는 잎새가 아주 많아서 세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거든. 지금은 아주 쉬어졌어. 저기 담쟁이에 있는 다섯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떠나야 해!”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의사 선생이 치료를 잘 하고 있으면 완쾌될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언니, 잎새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 존시가 조용히 드러누운 채 눈을 감으면서 말을 한다. “잎새가 모두 떨어지면 알려줘!” 베이먼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60세가 넘는 노화가. 당장이라도 걸작을 그릴 것처럼 굴었지만 시작도 못하면서 몇 년 동안은 이따금 상업용이나 광고용으로 서투른 그림을 그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어두운 조명빛이 가늘게 켜져 있는 베이먼 노화가를 수잔이 찾아갔다. 존시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 뒤 조언을 부탁한다고 사정을 했다. 베이먼은 시뻘개진 눈을 비벼대면서 격노를 토한다. “뭐? 덩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나에게 그림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니 전에 허무한 망상에 잠겨있는 존시의 사고방식을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하면서 소리르 질러댄다. 잠시 후 수잔은 베이먼 아저씨와

함께 옆방으로 가서 덩굴잎이 있는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참을 자고 일어난 존시가 언니를 부르면서 “창문에 가려진 녹색 블라인드를 내려줄래? 창밖에 있는 잎새를 자세히 볼 수 있게.. 참 신기하네. 비바람이 밤새껏 내렸는데 한 개의 잎이 그대로 있네.” 정신이 맑아지고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이 대견한 듯 몸동작으로 “언니, 닭고기 스프를 만들어 줄래? 배가 몹시 고프네.” 존시는 앞으로는 언니 말도 잘 듣고 엉뚱한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잠시 후 관리인이 급히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준다. 어젯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중에 담쟁이 나무옆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베이먼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놀란 두 자매가 밖으로 나가보니 붓 몇 자루가 마당에서 뒹굴고 긴 사다리는 넘어져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걸작을 남겨놓고 베이먼 노화가는 처녀 지망생인 존시를 살려놓고 희생하신거야.” 언니 수잔이 존시에게 작은 소리로 알려준다. 건강을 회복하고 꿈을 찾게된 존시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베이먼의 명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하였다. ‘베이먼 노화가의 마지막 잎새는 저 담장에서 오래도록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겠지!’

이 글을 써주신 박수신권사님은 지난해 12월 28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글은 고인의 마지막 유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복락을 빕니다.



미국에서 3주 살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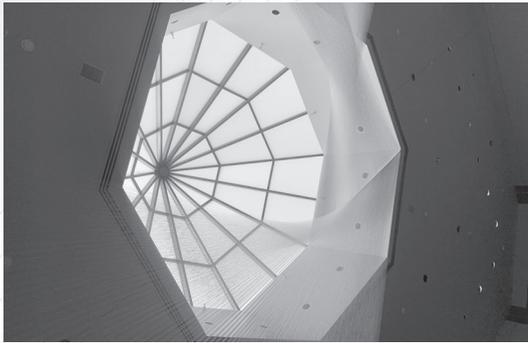


간혜원 청년

저는 올해 여름,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BYU에서 3주간 생활하며 전공연수 체험을 했습니다. 3주간 BYU에서 직접 수업을 수강하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고 값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친구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꿈꿔왔던 대학 생활도 하지 못했지만, 3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살며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미국 대학 생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타주는 매우 건조한 날씨를 가졌습니다. 같이 기숙사를 쓰는 사람 중 코피가 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만큼 건조하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를 걸어가며 친구들과 한국의 여름 날씨와는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과는 다르게 그늘에만 들어가도 금방 시원해지며, 습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여름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BYU는 굉장히 넓은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을 위한 건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이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박물관은 기숙사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쉽게 가볼 수 있었습니다. 가



장 먼저 가본 곳은 Museum of Arts로 처음 들어간 입구에는 무지개 빛이 나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미술관이라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약 4개의 전시관이 존재했고, 다 둘러보는데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공연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영어 멘토링 수업이었습니다. BYU 학생이 멘토가 되어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캠퍼스를 벗어나 Provo Library에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건물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Provo Library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멋진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고,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줄지어 있어서 생활하는 내내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숙사 바로 뒤에는 Y mountain이 위치해서 캠퍼스 어디를 걸어다니든 높이 솟아있는 산을 볼 수 있었고, 치안이 좋은 지역이라서 밤에 산 근처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유타주



<Provo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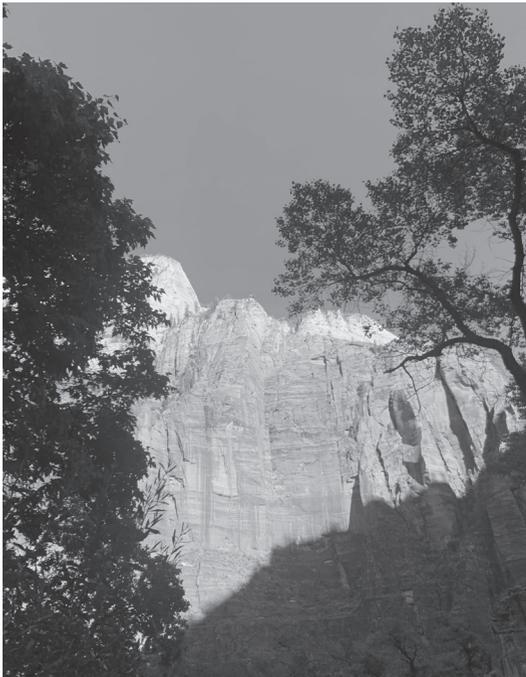


<Y m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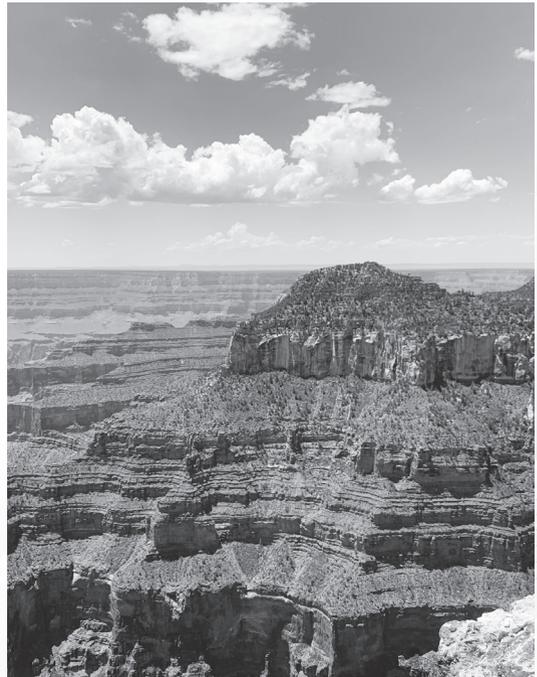
에 사는 사람들은 산책을 하다가 만난 사람에게도 손을 흔들고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캠퍼스에서만 생활한 것은 아니고, 2박 3일로 짧게 연수를 함께 떠난 사람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미국의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하고, 유타주의 유명한 Zion Canyon도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랜드 캐니언은 약 10년 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조금 더 자란 상태로 방문한 그랜드 캐니언은 제 기억보다 훨씬 웅장하고 거대하며, 자연만이 보여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BYU에서 생활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여유롭고 평화롭던 분위기가 가끔 떠올라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아시아인의 수가 적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의 문화를 많이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잇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망설임 없이 유타주에 방문해 이번 여름 제가 쌓았던 추억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Zion canyon>



<Grand Canyon>

90세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신다



허인업 집사

사시는 곳은 서울 바깥 아래쪽에 살고 계신데 마스크를 쓰지 않던 시기에는 수요일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 1-2시간 전에 오셔서 교회식당에서 칼을 갈아주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주일예배에 출석하기도 힘든 거리인데, 주일예배 뿐만 아니라 연합새벽기도회 그리고 수요일에 칼을 가는 봉사를 꾸준히 하신다는 것은, 젊은 사람인 나조차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권사님을 볼 때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예배 후 성가대 회식자리에서 우연찮게 끼게 되면서, 권사님과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게 되었다. 서먹하게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권사님께서 6.25전쟁을 겪었던 얘기를 들려주셨다. 처음에는 권사님의 이복 사투리와 말씀이 빠르셔서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6.25전쟁 때 학생 신분에서 북한군복으로 위장했다가, 남한군복으로 위장했다가를 반복하며 남쪽으로 도망쳐왔던 이야기, 결국 군입대 후 전투 중에 참호에서 집중포화를 맞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이야기.... 리얼한 그때 그 상황 속 얘기를 듣게 되니, 직접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을 순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

도하시면서 살려주시면 교회에 잘 다니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교회를 다니시며,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얘기를 끝마치셨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겼다. 나는 과연 교회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다니고 있나? 돌이켜보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음이고 수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업앤다운을 경험하면서도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는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마음 한 구석이 숙연해졌다. 무심코, 4층 식당을 바라볼 때마다 그 권사님이 칼을 가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벌써 수년이 지난 얘기여서 그동안 사회와 삶 속에서 수많은 상황들이 긴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문득 '지금은 참 축복받은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처절했던 격동기를 지나온 인고의 세월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간직했던 부모님 세대를 어여삐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지금 세대가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인지를 깨닫게 된다. 성경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가능하다는 건, 어쩌면 부모세대의 믿음이 자식세대의 축복으로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평화의 기도



오명희 장로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환자가 추워서 별벌 떨며 서있었습니다.
나병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 몸이 뽕뽕 얼어 죽게 생겼네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둥병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안된다고 거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로 준비해 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게걸스럽게 다 먹어치웠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 커녕 기침을 콜록 하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울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지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환자에게 울화가 치밀어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일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둥병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수없이 맨바닥에 자려고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 왔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문둥병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내 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꼭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문둥병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 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냄새가 베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 있을 뿐 왔다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 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송가 악보 및 해설



김영진 원로장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319

김영진, 2002
보통으로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히 11:3)

왕조의 하나님: B.B.B.B.D.
박재훈, 2004

1.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 하 신 주 하 나 님
 2.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 하 신 주 하 나 님
 3. 선택 받은 백성이요 구원 받은 성도로서

은인 류를 구원 하려 독생 성 자 주셨도다
 우리 들을 선택 하여 구원 받게 하셨으니
 우리 에게 주신 사명 성실 하 게 수행 하여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 하세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은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소명과 찬성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구원하러-생명-말-씀 주셨으니
말씀 듣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살아 있는-생명 말씀 널-리널리 전파하세

말씀으로-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못 사람을-인도하러-성경-말씀 주셨으니
말씀 읽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린 우리
변치 않는-주님 말씀 온-세상에 전파하세

말씀으로-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어둔 밤을-밝히시려-진리-말-씀 주셨으니
말씀 믿고 영생 얻어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참 생명의-진리 말씀 우-리 함께 전파하세

[해설]

나도 찬송가에 들어갈 노래를 짓고 싶었다. 평생을 문서 선교에 종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를 쓰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를 쓰고 싶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시와 노래이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모두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에 은총을 주시니, 그 기쁨을 시로 바치는 영광을 무엇에 비기랴.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 성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먼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크신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을 문자화한 성경을 통해 땅 끝까지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만든 이 찬송은 '문서 선교의 노래'로 매우 적합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노래한 찬송이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으니, 나도 그 안에서 작은 말씀 하나 띄우고 싶었던 것이다. (김영진 작사/박재훈 작곡, 한국찬송가공회 『21세기 찬송가』 319장에 실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노래

오른 것을 품어 있게 하고 왼서 있게 하라(고전 14:40)

태산을 넘어 혈곡에 가도(21C. 445장) 곡조
김영진 작사 보봉으로

HEAVENLY SUNLIGHT: 10.9.10.9.D.

해리슨 곡 작곡
淨寫: 오소운 목사

♩ = 80

1. 거룩한 주님은 은혜를 받아 한 뿌리 자란 우리 형제
2. 영광의 주님은 늘 찬송하며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니
3. 생명의 주님은 말씀 받을 아우러 르면 서로 따르니

하늘을 뚫고 힘차게 뻗는 푸르고 푸른 대나무라
드높은 하늘 매지어 날며 서로가 돕는 대기러기 때
감 감한 어둠 성난 저바람 다 물리치어 새날 일세

사랑과 자유 평화의 꽃이 탐스런 열매 때 때 맺었네
믿음과 헌신 봉사를 언로 앞다투어 서 땀 흘리우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사명을 받아 앞장 선 우리

은 누리의 밤 아 아 침 이 로 다 소 망 의 문 을 활 짝 열 자
시 대 의 허 뵈 나 밝 은 이 로 다 소 망 의 문 을 활 짝 열 자
영 원 하 뵈 나 밝 은 이 로 다 소 망 의 문 을 활 짝 열 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노래

1.

거룩한 주님 은혜 받고 자란 한 뿌리 형제
하늘을 뚫고 오른 곧고 푸른 대나무 되어
사랑과 자유와 평화 열매 맺으니
온 누리 밝아 오네 소망의 문 활짝 열렸네

2.

영광의 주님 찬송 합창하는 한 마음 우리
떼지어 날아가며 서로 돕는 기러기 되어
믿음과 헌신과 봉사로 땀 흘리니
시대의 등불이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네

3.

생명의 주님 말씀 우러르며 따르는 우리
어둠과 비바람을 물리치고 맞이한 새날
선교와 봉사를 정성 다해 이루리
영원히 뻗어나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여

[해설]

1절 대나무의 상징을 나타냈다. 올곧은 기상과 푸른 절개, 그리고 꺾이지 않는 혼의 미학을 노래했다.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를 소재로 “한 뿌리 형제”, “하늘을 뚫고 오른”, “곧고 푸른”, “열매 맺는” 등의 은유적 이미지를 살려 기독교 정신과 사상을 담았다. 2절 기러기의 상징을 그려보았다. 기러기가 떼지어 날아가는 것을 안행(雁行)이라고 한다. 기러기 떼가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계속 날아가기 위해서는 맨 선두가 가장 많은 힘을 쓴다. 날아가면서 앞뒤 순서를 바꾸는데,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응원한다. 이러한 협력과 봉사 정신을 높이 사서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기러기를 상징 동물로 삼았다. “합창하는”, “떼지어 날아가는”, “서로 돕는”, “헌신과 봉사” 등을 통해 기독교 장로회의 협동과 봉사 정신을 강조했다. 3절 기독교 장로회의 정신을 표현했다. 대나무의 올곧은 정신과 기러기의 헌신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노래했다. 그런 정신과 자세로 시대의 비바람과 어둠을 뚫고 선교와 봉사의 새날을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교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소명과 시대적인 사명을 묘사했다. 소속된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히 뻗어나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될 것이다. (김영진 작사/오소운 편곡,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모임이나 행사 때 합창)

섹션 III

특집 : 다시 모이자, 풀밭 고을로

교회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 최동익 원로장로
천사품에 안긴 나의 어머니 | 강귀순 권사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총 | 황성길 권사
포근한 어머니 품 같은 초동으로 다시 모입니다 | 나호천 장로
초동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이다 | 김범수 집사
초동교회는 미래를 향하는 교회이다 | 박형종 교육전도사
초동교회학교 회상과 미래 | 이경로 권사
성탄전야 단상 | 변건울 목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최동익 원로장로

지난 10월 2일 주일에, 초동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롭게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19 재앙(災殃)으로 인하여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였던 교회입니다. 3년 만에 활기(活氣)를 되찾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주신 감사의 잔치를 하였습니다. 손성호 목사님을 비롯한 임하늘 목사님, 이상준 목사님, 박지온 목사님, 문정영 전도사님의 교역자 여러분, 당회 서기 윤동원 장로님을 비롯한 나호천 장로님, 박영주 장로님, 정병우 장로님, 정용덕 장로님, 이희중 장로님의 시무장로 여러분, 그리고 남녀 제직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창립 77주년 기념예배를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보람있게 드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만찬 예식, 특별 찬양, 축하 케익 커팅, 전교인 기념 촬영의 모든 순서가 어울려,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믿음의 한 가족>을 다지는,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최웅섭(崔雄燮) 권사님께서 구순(九旬) 생신을 기념하여 전 교인에게 대접한 식탁(食卓)에서 모처럼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1945년 조국(祖國)의 광복(光復) 직후, 당시 서울시 중구 초동의 일본인교회, 경성약초정교회(京城若草町教會)를 김종대(金鍾大) 목사님과 유재기(劉載奇) 목사님이 접수하여, 당회장 함태영(咸台永) 목사님을 모시고 초동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일본인교회를 터전으로 “해방둥이”로 태어났으니 창조주(創造主)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攝理)입니다. 1950년의 6. 25 전쟁

으로 인하여 목조(木造) 2층의 교회당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서울 수복(收復) 후 잿더미 위에 천막교회와 판자교회를 지어 예배드리다가 1959년에 2층 벽돌 교회를 신축하여 봉헌하였습니다. 1972년에는 통일선교(統一宣敎)를 지향하고 새로운 교회상(教會像)을 정립하기 위해, 종로구 돈의동에 6층 도심(都心) 다목적(多目的) 선교센터를 신축 이전(移轉)하였습니다. 이로써, 초동교회의 “27년 초동 시대” (1945-1972년)를 마감하고, “종로 시대”가 개막(開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동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들이 직분(職分)을 맡아 77년간 때를 따라 충성껏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知識)과 재능(才能)의 은사(恩赦)를 바쳐 봉사하였습니다. 초대 문화활동위원장을 역임하신 극작가 암산(巖山) 주태익(朱泰益) 선생님, 서울시 중구 초동의 2층 벽돌 교회당 헌당송(獻堂頌)을 작사하신 청록파(靑鹿派) 시인 박목월 선생님, 추수감사절 “영광송”을 작사하고 2015년에 대한민국예술원상(大韓民國藝術院賞)을 수상하신 원로시인 후백(后白) 황금찬(黃金燦) 선생님, 서울YMCA 부장 재임(在任) 시절에 초동교회 중고등부장으로 봉사하다가 아시아YMCA 사무총장과 세계YMCA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사단법인 세계선린회(World Neighbors)”를 창설하신 이수민(李秀民) 목사님, 교계(敎界) 법조인 모임 애중회(愛重會)의 창립 산파역(産婆役)을 맡으시고 초대 총무를 역임하신 변호사 이영환(李英煥) 장로님,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시간에 본당에서 성서 판소리 “예수탄생”을 부르신 인간문화재 국창(國唱)이신 인당(忍堂) 박동진(朴東鎭) 장로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세브란스병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아동 치유 교육 시설인 “햇빛조기교실”의 개설(開設)에 진력(盡力)하신 양재모(梁在謨) 장로님, 대한적십자사 총재, 흥사단(興士團) 이사장, 신사회공동선운동(新社會共同善運動) 대표, KBS 사장을 역임하시고 “초동교회 5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서영훈(徐英勳) 장로님,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초동교회 남신도회장과 남신도회 전국연합회장을 역임하신 오덕준(吳德俊) 장로님, 경기 민요 인간문화재로 추수감사절에 “풍년가”를 부르시면 교인들이 “얼씨구나, 좋다, 할렐루야”를 따라 불렀던 이윤란(예명 이은주) 권사님, 가화의료재단 이사장으로 한민족평화통일촉진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여류시인 “봄비 아트센터” 이사장 전덕기 권사님 이십니다.

국립교향악단 비올라 연주자로 활약하면서 돈의동 교회 헌당음악회에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지휘하고 26년간 성가대를 지휘하신 이준우(李準愚) 장로님, 이화여대의 과대학 교수와 대한혈액협회장을 역임하고 순천향대학병원 원장으로 봉사하면서 의료선교에 봉사하신姜득룡(姜得龍) 장로님, “초동 의료선교단” 단장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주관하신 치과의사 신광희(申光熙) 권사님, 1977년에 남신도회 개척교회부장으로 오덕준 회장과 함께 “초

동교회 남신도회 주관 개척교회”인 영등포구 구로동의 천세교회 개척 설립에 헌신하고, 1984년에 장로 임직하여 섬기면서 소명(召命)을 받아 서울노회 평광고회를 개척하신 김창국(金昌國) 목사님이십니다.

경기도 벽제의 “김영진문학관”에 성경문학관과 시비공원(詩碑公園)을 세우신 “새벗” 발행인 겸 “성서원” 원장 수계(首溪) 김영진(金永鎭) 장로님, 초동교회 회지(會誌) “풀밭”의 초대 편집장으로 봉사하신 동국대학교 교수 김태준(金泰俊) 권사님, 한국경영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회장,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을 역임하면서, 교회창립 60주년 기념행사위원장과 “재단법인 초동교회공원묘원이사회” 상임이사로 봉사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인기(朱仁基) 장로님, KBS관현악단 트럼펫 연주자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및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교회 창립 40주년기념음악회에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지휘하신 서현석(徐賢錫) 장로님, 계간(季刊) “월터니스 Wilderness” 발행인, 세익스피어학회 회장이며, 조향록 원로 목사님 추모, “난곡홀” 개관 기념, 극단 “부활”의 주태익 선생 원작 “마지막 배”를 연출하신 대진대학교 교수 박정근(朴定根) 권사님이십니다.

부름 받은 청지기들이 재물(財物)을 은사(恩赦)로 받아, 이를 성별(聖別)하여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안성수양관과 안성공원묘원의 부지(敷地)를 헌납하신 경암(鏡巖) 주병건(朱炳建) 장로님, 성북구 상계동 전답(田畓)을 헌납하신 김인수(金仁洙) 장로님, 경기도 여주의 천송교회 개척 부지를 헌납하신 전마리아 권사님, 노원구 상계동 주택을 기증하신 허인순 권사님, 송파구 오륜동 아파트를 기증하신 유명규 권사님, 아프리카 케냐의 카사라니초동교회 건축대금을 헌납하신 서형열(徐炯烈) 장로님,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변(延邊)의 조선족교회(朝鮮族教會) 장항촌교회(獐項村教會) 건립기금을 헌납하신 이부영 권사님, 안성수양관 신관(新館)의 건축자금을 헌납하신 김종숙 권사님이십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최정자 권사님이 제작하신 대형 칠보 작품,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의 제작비용을 헌납하신 김봉자 권사님, “의산(義山) 장학금”과 카사라니초동교회 아카데미센터의 부지구입 대금을 헌납하신 “사단법인 월드 네이버스” (World Neighbors - 세계선린회) 이사장 김천규(金天圭) 장로님,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를 헌납하신 박희상 권사님, 교회의 영상설비(映像設備) 자금을 헌납하신 김권태 권사님/이태주 권사님, <초동교회 신앙생활 가이드북, “우리는 초동교회를 사랑합니다”>의 발간 비용을 헌납하신 문범수 권사님/윤항정 권사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이웃을 구제(救濟)하거나 선행(善行)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것이로되, 우리의 기억을 “풀밭”에 심어, 역사의 향기를 오랫동안 간직하려는 것입니다.

초동교회를 77년간 이끌어오신 여섯 분 담임목사님들의 헌신과 노고(勞苦)를 되돌아봅니다. 먼저 해방정국(解放政局)에서 교회를 창립하고, 정부수립과 남북분단(南北分斷)의 극심(極甚)한 혼돈(混沌)의 시기에 교회의 기틀을 세우신 초대 이성국(李成國) 목사님, 1950년 6월 25일 주일예배 시간에 한국전쟁의 발발(勃發)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피난 가시어 30명가량 모인 피난민교회를 인도하고, 서울 수복(收復) 후, 폐허(廢墟)에 판자교회와 천막교회를 세워 교회 재건(再建)에 힘쓰시는 와중(渦中)에, 한국정부에서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초대 총장으로 임명받아 부득이 교회를 사임하신 제2대 정대위(鄭大爲) 목사님, 중구 초동에 2층 벽돌 예배당을 신축하여 교회의 중흥(中興)을 선도(先導)하고, 종로구 돈의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심(都心) 다목적 선교센터를 세워 목양일념(牧羊一念)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군사정권하에서 장기휴교(長期休校) 중인 한신대학 이사회가 초동교회 담임목사를 한신대학 총장으로 임명하여, 오랜 고심(苦心) 끝에 교회를 떠나 한신대학 제9대 학장으로 취임하신 제3대 조향록(趙香錄)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회지(會誌) “풀밭”을 창간(創刊)하고, 국내외에 9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고, 안성수양관과 안성공원묘원을 건립(建立)하여 교회의 지경(地境)을 넓히신 후, 교인들의 만류(挽留)에도 불구하고, 후진양성(後進養成)을 위해 조기(早期) 시무사임(視務辭任)하고 자원(自願) 은퇴하신 제4대 신익호(辛翼鎬) 목사님, 기드온 섬김용사 운동을 발족(發足)하고, 교회당 대수리공사(大修理工事)와 선교관 봉헌예배를 주관하신 제5대 강석찬(姜錫璨) 목사님, 전임(前任) 목회자의 사임 사태(事態)를 전후하여, 무너진 교회의 질서(秩序)와 권위(權威)를 바로 세우고, 도심교회(都心教會)의 최대 난제(難題)인 어린이, 청소년 교회학교의 회생(回生)을 위해 진력(盡力)하고, 기드온 섬김용사 운동의 활성화를 지도하고, <초동교회 신앙생활 가이드북 “우리는 초동교회를 사랑합니다”>를 저술(著述) 발간하여 교인을 훈련하고, “돈의동 선교센터”를 개관하여 쪽방촌 선교와 “나눔 식탁” 봉사에 힘쓰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온라인예배를 인도하시는 제6대 손성호(孫成浩) 목사님이십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하여 세계 각국에 퍼져 많은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재택근무(在宅勤務), 비대면사회(非對面社會)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양식과 사고방식(思考方式)이 달라지고, 정보통신망(情報通信網)이 발달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공동체, “에클레시아”(Ecclesia)인데, 자유로이 교회당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니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그동안 거의 3년이나 지속되고 보니, 평범한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경제 회생이 당면(當面)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발적 생활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을 엔데믹(endemic)으로 서서히 유도(誘導)하는, “with 코로나” 시책(施策)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개신교회(改新教會)가 사회의 지탄(指彈)을 받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교 사찰(寺刹)이나 카톨릭 성당(聖堂)은 비교적 조용한데, 개신교회가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니, 개신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時急)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어떻게 수습(收拾)될는지 알 수 없으나, 코로나 이후(以後)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새롭게 갱신(更新)하고 개혁(改革)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쌓여 오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표출(表出)된 문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과제, 세계적 재앙(災殃)에 직면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질병과 치유, 영혼 구원과 영생, 사회복지 분야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전략(宣敎戰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익숙해진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와 “건물 없는 교회 운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개혁의 과제(課題)로 부상(浮上)하였습니다. 본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의 기능(機能)이 있는데도, 한국교회는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망각(忘却)한 채, “모이는 교회”의 관행(慣行)만을 집착(執着)하여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일터와 가정의 현실세계(現實世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펼치는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성실(誠實)하게 수행(遂行)하여,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本質)”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危機)를 교회개혁의 기회(機會)로 삼아, 상실(喪失)과 절망의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治癒)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2012년 5월에 부임하신 손성호 목사님은 그동안 10년간 시무(視務)하시는 동안, <목회서신>을 통하여 수시로 교회의 비전을 제시(提示)하셨습니다. <도심지 교회로서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사명의 꿈을 심어주는 약동하는 교회>, <어르신들에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제공하는 평화로운 교회>, <한국교회에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앞서가는 교회>,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웃으로부터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믿음의 한 가족”이라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2022년 11월의 깊어가는 이 가을에는, 교회창립 100주년을 예비하고 청사진(靑寫眞)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초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동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이다’ 천사품에 안긴 나의 어머니



강귀순 권사

어머니가 떠나셨다. 천사품에 안겨 하늘나라로 가셨다. 향년, 99세. 천수를 다 사셨다고 하나 아쉬움이 남는 건 자식들 마음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 데려가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2022년 7월 14일. 요양병원 입원 한달 열흘 만에 떠나셨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잘했다. 우리 어릴 때 구멍 난 양말바닥을 바늘로 꿰매는 것이 아니라 재봉틀로 박았다. 시집오기 전 바느질하는 것을 아버지가 사립문 밖에서 보고 반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금광의 측량기사로 돈을 잘 벌었다. 이곳저곳 논밭을 많이 사 놓고 그 논 일부가 충북대학교 짓는데 들어가 목돈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후 금광을 그만두고 외가 쪽 검찰청에 계신분의 주선으로 경찰 공무원이 되었다. 전란 후라 종종 공비토벌을 위해 지리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자 사표를 내고 큰 정미소를 샀다. 아버지가 새로 지은 기와집은 중등교사를 하던 큰아버지에게 주고 우리는 정미소 딸린 집으로 이사했다. 자기 형에게 전기특선을 달아주었다. 그 시절에는 자정이 되면 일반전기는 전기회사에서 모두 소등시켰다. 우리는 정미소를 하기에 종일 쓰는 특선을 썼다. 전기회사직원과 실랑이가 있자 성격이 급한 아버지는 전기공학도인 처남의 만류에도 막무가내 전깃줄을 끊으려 전봇대에 올라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

다. 온순하기만 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많은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 30대의 젊은 과부인 며느리대신 할아버지와 큰집에서 모든 것을 간섭했다. 우리는 가난해져서 몹시 힘들었다. 가끔 어머니의 무능을 원망했다.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그들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

어머니가 청주로 가지게 된 것은 90세가 되어서다. 외지인들은 청주공원묘원에 안장할 수 없다하여 아버지가 계신 고향에 가기 위해 거주지를 옮겼다. 그곳은 큰아들도 있고 당신남동생인 외삼촌도 계시기에 잘 지내셨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폐렴을 앓고 거동이 불편해졌다. 보살핌 없이는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부랴부랴 서울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서울 노원구에는 나와 여동생 둘, 어머니 딸 셋이 살고 있다.

막내 딸 옆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 삼십 만원이다. 구순 넘은 어머니의 자식들은 이제 모두 나이가 많아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집집의 생활형편이란 것이 꽤나 좋은 것은 없다. 어머니 생활은 정부보조금만으로는 힘들다. 관리비만도 월 십오 만원이 넘는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할까 고민하며 기도했다. 몇 몇 날을 생각하던 중 좋은 묘책이 떠올랐다. 어머니에게 손자들이 많다. 공부하는 학생을 빼면 열 명의 손자가 있다. 그래, 탄 방법이 없어, 시행하자. 나는 공문은 아니지만 형식을 갖추 문구를 작성했다.

‘애들아! 큰고모, 큰 이모다.’를 서두로 할머니의 처한 상황과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며 그들의 측은지심 발동과 효심을 공략했다. 너희가 커피 값 몇 번 아껴서 이만 원 정도만 할머니를 위해 써 주기 바란다고 작성하고 막내여동생에게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로 보내라고 했다. 모두들 찬성하고 그보다 더 보내오는 애들도 있고, 잊고 있다 한꺼번에 보내오기도 했다. 어머니 아들 둘에게는 매달 십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 그것으로 거주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 곁에 가까이 살고 있는 여동생들은 자주 들러 불편함이 없는가를 늘 살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만나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는다. 주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코로나가 심해지며 문상객 없는 장례식이 빈번해졌다. 내게 곧 닥칠 일이라 걱정이 되었다.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 일천이백만원 정도의 장례비용이 든다고 한다. 어머니장례비용을 저축해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을 절약하자고 했다. 둘째여동생은 잡숫는 것, 음료수는 막내가, 과일은 내가 책임졌다. 일 년이 지나 자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였다. 손자들이 보내는 돈은 중지시켰다. 삼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목표했던 대로 돈이 쌓여갔다. 마음이 편해졌다. 언제 돌아가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잡숫는 것이 점점 까다로워졌다. 그 옛날을 항상 그리워했다. 콩국수도 맷돌이 갈아 곱게 체에 걸러 진 맑고 진한 것을 원했다. 침대도 푹 꺼졌다고 다시 바꾸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이리저리 방향을 자주 바꿔 우리를 힘들게 했다. 고집이 세져 우리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았다. 귀가 어두워져 큰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들었다. 우리가 소리 지르면 또 소리 지른다고 화를 냈다. 보청기를 해 드린다 해도 누구에게 무슨 소릴 들었는지 왕왕 울리며 좋지 않다고 완강히 거절했다. 아침저녁 들르는 막내여동생과의 충돌도 심해졌다. 오전시간은 그나마 요양사가 들려주어 감사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어머니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잠자코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아쉬움만 커진다.

어머니가 새벽에 숨쉬기 힘들다고 백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사는 심근경색으로 심장시술을 해서 스텐을 심어야 하는데 움직이면 다시 시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도 너털너털 달려있는 주사줄을 거추장스럽다고 빼려고 한다. 어머니에게 스텐을 심는 시술은 자신이 없다. 우리는 약한 어머니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결정짓고 약물치료를 원했다. 의사는 퇴원을 명령하고 내과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을 추천해주었다. 집에서도 가까워 항시 들를 수 있었다. 주 1회의 면회가 허락되어 지방에 있는 아들과 외삼촌 모두 한번 씩 만나보고 우리는 주말마다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갔다. 식사를 못하면 영양제투여로 대신했다. 전화로 당신이 필요한 것은 막내딸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해 있으니 안심되었다.

면회일이 아닌데 의사의 부름이 있어서 갔다. 많이 약해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안쓰러웠다. 입이 말라있다. 숨쉬기에 불편해 한다. 미지근한 물을 드리니 찬물을 달라고 한다. 간병인이 꺼내준 찬 물을 입에 대 주었다. 빨대로 몇 모금 마신다. 뒤에서 기다리는 동생을 위해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나갔다. 집에 도착해서 잠시 있자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운명 하실 것 같다고 빨리 오란다. 쿵쾅쿵쾅 심장이 요동을 친다. 딸애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움직임도 없다. 살점하나 없는 손이 싸늘하다. 생수만 조금 마시고 떠나셨다.

가깝게 있는 손자들이 몰려왔다. 장례절차양식을 그들이 모두 했다. 이런 어렵고 굵은 일도 잘 하는구나 다 잘 컸구나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른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의 큰아들 내외가 '구인사'라는 큰 절을 섬기는 불교신자이다. 행사에는 빠짐없이 여러 날을 머물며 봉사하곤 한다. 어머니의 장례절차를 어떻게 할까 서로 울근불근 큰소리 나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니 어찌할까 근심했다. 목사님께 여쭙어 기도만 할까하니 단호히 기독교식으로 장례절차를 하자고 하신다.

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래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생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으니 좋아하실 것이다 밀고 나가자. 초동교회기와 초동교회 리본이 달린 근조 국화바구니가 좌우로 차려졌다. 관보를 받고 가슴이 떨렸다. 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관보제작을 내가 했었다. 큰 동생은 만아들로서 사흘 내내 어머니 영정을 지켰다. 불만스러움 없이 잘 있어 주었다. 감사했다.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불만 없이 목사님이 진행하는 것을 따랐다. 발인

전날 나는 동생들에게 각자 부의금 받은 것 찾아가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모아 놓은 어머니 장례비용이 충분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시고 모아놓은 그 돈을 남김없이 꼭 알맞게 쓰고 가셨는지 이모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감사 드린다.

어머니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산새 좋고 양지바른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그 옛날 새파란 30대의 아버지를 알아보기나 하셨을까?

큰딸 지현이가 말한다. 동생들하고 합쳐 넷이서 백만 원 할머니를 위한 감사헌금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맙다고 했다. 아들 정환이와 같이 교회 가는 길에 누나한테 돈 보냈니? 물으니 자신도 따로 백만 원 감사헌금 했다고 한다. 그래 고맙다. 긴 듯 아닌 듯 알쏭달쏭했던 아들이 다시 보인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구나. 눈시울이 뜨겁다. 그래, 교회에서 참 사랑 많이 받으며 자랐으니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뿌듯하다.

나는 모래성을 쌓고 살았다. 이웃에 살던 어느 여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빨간 손가방을 나중에 안 쓰면 달라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곳에 항상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라고 한다. 나는 피식 웃고 말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기 전 얼마나 허황되게 살아왔는지 부끄럽다. 지금생각하면 혹독한 채찍을 맞고 지나간 터널을 지나오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였지만 왜 힘들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작은 내 가슴에 소망을 심고 기쁨을 넣고 다독이셨나보다. 헌금은 꿈도 못 꾸고 교통비만 있으면 아이들이나 나나 달려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했다. 어느 권사님의 말씀처럼 가난이 큰 축복이라는 것에 나는 실감한다. 내 자식들이 서슴없이 서로 아끼고 돕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단비를 맞으며 자랐기 때문이다. 초동교회가 그 일을 사랑으로 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아이들 등록금을 서슴없이 내 주며 사랑을 가르쳐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랐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그 모두를 가르쳤다. 부족한 내가 무엇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는지 가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릴 길 없다.

“ 미세한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



‘초동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총



황성길 권사

“하나님, 초동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푸른 초장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삶의 고비바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당연히 다녀야 했던 교회, 부족함 없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고 힘들고 고달픈 때 예수님과 교회를 원망하기도 했다. 봉사과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 떠나시니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며 교회를 멀리하고 부정과 미움이 가득한 젊은 시절을 보내던 나에게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지금의 흥복회 권사와의 만남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결혼 조건은 교인이어야 한다가에 나도 교인이라며(당시 교회 출석하지 않던 시절) 기독교인이라는 공통점으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초동교회에 가끔 출석하는 일요교인이 되었다.

80년 대 국가적 혼란과 사회 불안 속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괴로워하던 차 어느 날 새벽 잠결에 들려오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가슴 속이 뜨거워지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즉시 홍 권사와 상의하고 나는 오산리 기도원으로 향했다. 3일 금식기도 작성하고 기도소인 토굴에 들어가니 정면에 십자가가 있고 밑에 돛자리 놓여 있는데 무릎을 꿇어 기도하려하니 기도는 나오지 않고 이전 내 마음대로 지내 온 일들과 온갖 잡된 생각과 배고픔이 나를 괴롭혔다.

둘째 날 심하게 시장 끼를 느끼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모습과 아들이 좋아하는 찹쌀떡을 사가지고 오시다 사고를 당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니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밤 새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과 순종, 교회 열심히 출석하며 섬기겠다는 기도를 드렸다.

3일 간 금식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며 초동교회를 방문하여 신익호 목사님을 뵙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다. 목사님은 미소로 “그럼요.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 “목사님 이제 교회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 목사님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안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의 일터를 빼앗는 것이지요.” 하시며 중고등부 교사를 권하셔서 저는 아직 술과 담배를 해서 어렵다 하니 차츰 고쳐가면서 하면 된다 하시기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당회장실을 나왔다. 나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 교사를 시작하면서 선배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남신도회에 참여하며 제직위원회 구역예배 참석 등 교회생활에 열심히 임하였다. 성가대 총무와 대장, 청년남신도회, 제2남신도회, 야곱회 회장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과 행사에 동참하면서 안성수영관 건립, 우면동 종교부지 건 등 교회연합활동, 서울노회 체육대회, 남신도회 이웃사랑음악회, 아리엘남성합창단도 창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나는 사고와 병고도 많이 겪었는데 1984년도 전기감전사고, 1995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2006년 뇌경색, 2020년 신장암 등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감전사고 당시 얼굴이 어떻게 되거나, 손가락이 절단되더라도 눈만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얼굴 뿐 아니라 눈도 손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추돌하여 화재가 났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순간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며 문을 밀었는데 문이 열려 탈출할 수 있었다. 내 몸 대퇴부에는 그 때의 사고로 인해 아직도 쇠 파이프가 들어 앉아 있다.

2006년 교회창립기념 연극을 준비하던 박정근 권사 권유로 배역을 맡아 연습 중이었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었지만 언어소통은 할 수 없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주님, 저는 교회 창립기념 연극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기적과도 같이 다음 날 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연습에 참여하고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다.

교회창립 70주년 기념 성경 필사를 나누어 할 때 동참하여 성경 필사를 작성하고 시작하였다. 2020년 시편을 필사하던 중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7cm 정도의 암이 발견되어 담당의사가 기도 많이 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가족에게는 걱정 말라고 했지만 때론 불안이 겹쳐 오기도 했다. 나는 주님 다했 왕도 죄를 짓고 잘못 했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살려 주셨는데 저도 살려 주세요 하며 억지를 부리며 매달렸다. 수술 일주일 전 손성호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받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며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였지만 성경필사를 계속하며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로 준비했다. 이젠 수술 후 3년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수술 전 보다 지금은 더 건강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덕분이다.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나타하여지거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내 육신을 채찍질 하시는 것 같다. 살려주시는 채찍으로 생각하니 감사드릴 뿐이다.

우리 가정에 주신 영육 간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넘치도록 크셨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을 안성 묘원에 모셨고, 저와 홍복희 권사에게 귀한 두 아들을 주셨고, 큰 아들 황태순 집사는 성현준 집사와, 둘째 황태영 집사는 이해진 집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손녀 지민이와 신형이, 준서 모두 초동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다. 다 주님의 은혜다.

부족한 사람에게 새해 다시 아브라함회 회장직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몸 된 교회와 선배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동참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한다.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동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이다’ 포근한 어머니의 품 같은 초동으로 다시 모입시다



나호천 장로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두가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들이고 각자 맡은 사명이 있다. 우리 몸 각 지체의 역할이 모두 다르듯이 각 교회의 역할과 스타일은 다르다. 세상의 모든 꽃이 모두 붉은색이면 전혀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빨간 꽃, 하얀 꽃, 노란 꽃 등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야 세상의 꽃밭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초동교회는 초동교회만의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초동교회만의 사명이 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초동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초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동교회에서 힘을 모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옛말에 ‘집을 나가봐야 집 좋은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그러나 집을 나가 보았던 사람은 고향 집이 편안하고 좋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타향에 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고향 집이 너무나 포근하고, 답답했던 마음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초동교회의 교인들도 3년여간 모이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예배를 드려야 했고, 교육부 활동, 신도회 활동 등 교회의 모든 활동은 정지되다시피 하여, 모든 것이 불편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회복 중이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에 따라 교회는 새해부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지방에 계신 교우, 해외에 계신 교우들은 본인이 초동교회 교인이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진다는 말을 종종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초동교회가 본인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초동교회는 무척 가족적인 분위기의 교회다. 이것은 새로 오신 교우들에게는 조금 냉정하고 소홀하다는 약점도 있지만, 교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면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초동교회가 왜 사랑스러운 교회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우선 초동교회는 교단 안에서 장자(長子)교회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것은 정대위 목사, 조향록 목사, 신익호 목사 등 선대(先代) 목사님들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많은 선배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교회 안팎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초동교회의 자랑거리를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오늘의 초동교회로 성장시키는데 3대 담임목사이신 조향록 목사님의 헌신과 노력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1954년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만34세의 젊은 나이에 부임한 조향록 목사님은, 초동교회를 어떤 교회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셨다고 생전에 직접 들었다. 인근에 영락교회, 충현교회, 경동교회로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서 초동교회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조향록 목사님은 초동교회를 우리 사회에서 '앞서가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많은 교인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을 많이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동교회에 출석하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초동교회에 사회 지도층이 많아지니, 그를 중심으로 하여 교인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 앞서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서, 1960년대 배움에 목말라 하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야학(夜學)을 개설하니 여기저기서 야학을 따라서 개설하게 되었고, 무료해 하는 노년층을 위해 각종 취미활동과 인문학을 가르치는 노인대학을 개설하니 이 또한, 뒤따라 하는 기관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활동에 자연스럽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이 모이게 되었으며, 기독교 청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YMCA 사무총장을 지낸 이수민 목사를 중심으로 청년교육에 힘을 쏟았더니 한때 초동교회는 대학생만 백수십 명 모이는 청년교육의 모범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초동의 교회터를 한국자동차보험에 매각하게 되어, 예배당을 종로3가 돈의동으로 이전하면서 예배당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빌딩형 예배당으로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선교센터 역할을 하도록 구상하면서 건축하였다.

디자인은 엷드려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천정이 높은 디자인의 예배당을 설계하였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뜻으로 노아(Noah) 방주(Ark)의 컨셉트를 도입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는 창문은 없고, 하늘을 향한 창문만 설치하였다. 벽면에 십자가 창을 설치하고, 당회장실에는 하늘을 향한 창을 설치하며, 높은 천정에는 은하수를 상징하는 별 등(燈)을 설치하는 등, 하늘 뜻을 바라는 소망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다.

초동교회 예배당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왜 벤즈(Benz) 심볼이 교회에 있느냐고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유럽에서 대주교가 있는 바실리카(Basilica) 교회에서 대주교의 의자 위에 설치한 코노파에움(Conopaeum)을 디자인한 것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여 제작한 것이다.

예배당에는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로서는 최초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하였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안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이 붉은색 카펫의 제단을 통하여 예배당 바닥까지 흘러넘치고, 성도는 그 보혈 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상징하여, 바닥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와인색 타일을 깔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벽면의 아래쪽은 특수 흡음재를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적절한 잔향이 남아있게 하는 어쿠스틱 효과를 기대하였고, 초동교회의 음향은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내게 되어 있다.

하나님 찬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돈의동 예배당 봉헌 시에, 초동교회 성가대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오케스트라 반주로 '천지창조'를 연주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대형 교회에는 오케스트라 연주팀이 있어서, 예배드릴 때 오케스트라 반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배당에서 오케스트라 반주로 찬양을 드린 최초의 교회는 우리 초동교회이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지역 빈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시설로 예배당 1층을 목욕탕으로 설계하고 창문을 사람 키보다 높게 건축하였으나, 교회 사정상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2층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실내 체육활동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예배당 봉헌 37년이 지난 2009년, 건물 시설에 낡은 곳이 많이 발생하여 건물을 대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명을 밝히기 위하여 1구(球) 전등 20개였던 조명설비를 3구(球) 전등 24개로 교체하였는데, 24개의 전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를 상징하며, 3구(球) 전등은 3위 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도록 의도하였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가 CCM 중심의 열린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초동교회는 정통 장로교 예배를 고수하는 몇 되지 않는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초동교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은 널리 알려져서, 과거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성가합창제’에서, 초동교회 성가대가 개막 연주를 하고, 영락교회 성가대가 폐막 연주를 하는 관행이 수년 동안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제단을 장식하는 꽃꽂이도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회보 표지사진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복음을 널리 전하려는 열정은 교회 개척으로 이어져서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국내에 7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해외에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에 3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해외 2개 교회의 건축을 헌금으로 지원하였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 초동교회는 가까이는 교회창립 80주년, 길게는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꿈을 꾸고 있다. ‘서울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꿈꾸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한다. ‘노아 방주’의 모습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있기만해서는 곤란하고,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전통은 분명히 힘이 된다. 우리에게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지금도 초동교회에는 초동교회만의 강점이 있다.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영상예배에 익숙한 교우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영상예배는 그조차도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쉬움이 많다. 모여서 같이 활동하지 못하고 말씀

듣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신앙생활은 행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함께 모여 찬양을 부를 때 더욱 힘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배가되기 때문이다.

성도는 모여야 한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성경말씀이 있지만 모여야 힘이 생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나가서 직접 전하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후원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질책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

우리 초동교회는 서울 도심에 자리하고 있고,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청년들이 모이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찾기가 쉽지 않다. 필요한 인프라도 대부분 구비되어 있다. 다만 활용이 문제이다. 이처럼 훌륭한 예배당 건물을 주일예배 시 3-4시간만 사용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 청년선교, 문화선교를 위해 교회는 선교사업을 해야 하고, 교회의 선교사업에는 기도로 후원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행동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필요하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는 자명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과제가 남는데, 이는 모여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모여야 힘이 생긴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동교회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지체로서 사명을 다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초동의 품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행할 일만 남았다.

‘초동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이다’ 아버지의 기도



김범수 집사

지난 11월 27일 아버지 추도일에 아버지 유품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발견하고 초동 풀밭지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라는 메세지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보니 아버지의 손 글씨 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신앙의 고민과 실천이 마음에서 느껴 집니다.

〈아버지의 기도〉

저희들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시여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오나

죄 많은 세상에 이끌려 죄를 짓는 때가 너무나도 많사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같이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은 매우 고상하나
저희들의 실천은 아주 저열하였나이다.
그렇게도 풍성하고 좋은 취지를 가졌으나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나이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베푸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들의 비애에 찬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써 저희들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소멸하옵고 우리들에게 참다운 신앙을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길을 파악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공의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저희들도 예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차게 살게 하여 주소서.

심히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초동교회는 미래를 향하는 교회이다



박형종 교육전도사

미래란 무엇인가?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듯이 다가올 미래를 기대한다.” 이러한 문장처럼 막연한 시간 안에서 언젠가 다가올 그 때를 지칭하는 단어로 우리는 ‘미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미래라는 단어 안에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날에 대한 꿈과 희망이 서려져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지만, 미래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있을 것만 같았던 ‘미래’가 ‘현재’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지난간 ‘과거’로 우리의 추억 속에 남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미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우주와 같이, 저 셀 수 없을 것만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온 세상에 가득 퍼져있습니다. 오히려 짝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창창하다”는 말은 단순히 젊고 어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든 연령과 모든 세대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 만, 수 천 가지의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 광활한 밤하늘에 빼곡히 박혀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우리를 향해 알아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별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 우리 스스로 숨을 들이 마시듯이,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단 한 번도 움직임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거대한 매순간 펼쳐지는 갈림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론 뛰어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초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초석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는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단 한 두 명이 모일지라도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것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훨씬 더 가치 있게 합니다. 훨씬 더 교회되게 합니다. 초동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초동의 역사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있습니다.

매년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교회의 표어는 바뀌게 됩니다. 지금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 교회만의 모토, 그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코 참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교회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이 아닌 참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됨’이라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손성호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참되기를 노력하며, 그 속에서 ‘됨’이라는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그 ‘참’과 ‘됨’이 만나서 ‘참 된 교회’, ‘참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신앙적 좌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 우리를 참 되다 불러 줄 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참 됨’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동교회는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입니다. 진실하고 올바르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예수’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진정 우리 초동교회가, 우리 초동식구가 달려가야 할 미래이자 방향입니다. 예수가 하셨듯이 생각하며, 예수가 하셨듯이 행동하며, 예수가 하셨듯이 말씀해야 합니다. 예수가 있었던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며, 예수가 가야할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초동교회는 미래를 향하는 교회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더욱 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복음에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이웃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초동교회의 미래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미래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글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말입니다. “초동교회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초동교회는 미래를 향하는 교회이다.”



박형중 교육전도사 - 2014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현재는 학부를 졸업 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재학중에 있다. 2018년도에 초동교회에서 교육총무로 첫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교육전도사로 초동교회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다.

‘초동교회는 미래를 향하는 교회이다’ 초동교회학교 회상과 미래



이경로 권사

신앙교육은 본래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나는 어려서 부터 부모님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식사 전 감사 기도하는 모습에서 감사를 배울 수 있었으며,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 주일 청주로 내려 와 주일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신앙생활의 철저를 배울 수 있었다. 당시엔 교통이 그리 편리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면 나는 아버지 신앙생활의 반에 반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이다. 시골 교회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고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며 겪은 일들이다. 포스터를 만들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담벼락에 부착하며 다니던 일, 그 결과 이웃 마을에서 몇몇 초등학생들이 찾아 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 성경공부 하고 찬송 배우고 오락을 함께 하며 즐기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고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름성경학교에 처음 등록하여 출석했던 어린이가 성장하여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다.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며 학교에서 학예회 준비하듯 어린이들과 함께 준비하던 일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데, 음악 프로그램과 종이를 오려 옷을 만들어 공연하던 성극 등이 기억에 남아있다.

상경하여 서울생활 시작하면서 원효로에 소재한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나는 아이들을 좋아한 관계로 교사를 지원해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그 시절 잊혀 지지 않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다.

담임목사 사모께서는 해마다 유치부 어린이들을 담당하여 가르치고 돌보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며 열성을 다해 돌보아 주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항상 웃음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살피주시던 자상한 모습은 바로 천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 해 본다.

어린이부를 담당하여 열심히 권사님 모녀가 함께 봉사하던 모습이며 때때로 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나누고 격려해주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내가 담임하여 가르치고 배우던 순진한 아이들 모습이다. 당시 교회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려운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결석하게 되면 집을 찾아 방문하곤 하였는데 때론 산꼭대기에서 천막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그래도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명랑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며 한강변에 나가 장난치며 놀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종로로 이사하면서 초동교회에 등록하고 제직 임명받았는데 그 당시 배춘근 집사님 권유로 교회학교 어린이부 교사로 임명되어 교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후 20여 년 동안 교육부에서의 생활이 교회생활 전성기(?)라 생각되며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잊혀 지지 않는 일들이 수 없이 많지만 6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아이들 전원 13명이 북한산 백운대를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오르던 일과 청평에서 캠핑하던 일이다. 특히 캠핑의 교통편은 기차를 이용하였는데 아슬아슬하게 기차표를 구입하여 돌아오던 일과 승객이 많아 고생하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안성 수양관에서 성경학교를 열어 아이들과 비 맞으며 개구리와 곤충 잡던 일 등도 잊을 수 없다. 아마 그 당시의 일을 내가 기억하듯 그 당시 아이들도 겪었던 일을 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총무는 대부분 한신대학원생들이 맡아 수고 해주었는데 김진호, 한상휘, 이준환, 박승휘 선생이 수고해 주었다.

청소년부 시절 문학의 밤 등 행사를 밤늦도록 준비하던 일,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던 일, 절두산 순례했던 일 등도 잊을 수 없다. 총무엔 이해길, 이준모, 김승종 선생이 기억에 남아 있다.

어린이부 시절 이부자 집사님과 양건중 집사님, 청소년부 시절 이춘애 집사님의 도움도 잊을 수 없으며 또한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개최하며 수양관에서 2박 3일씩 음식을 준비하여

도와주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교회 4층에서 김양순 집사가 직접 피자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나누던 일도 기억난다.

그 외 함께 고생하며 정열을 쏟아 교육하던 교사들, 지금 어디 어느 곳에 있든 지 그 때의 모든 교사들께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를 드린다.

대학생들인 청년1부를 담당했던 시절 운동권 학생과 비운동권 학생이 혼재해 있었는데 그래도 초등 대학생들은 사회적 이슈로 큰 대립 없이 순수한 신앙생활 속에서 화합하여 교회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청년2부 시절도 잊을 수 없다. 집에 초대하여 음식 나누며 밤늦도록 함께 지냈던 일과 북한산 등반을 하며 고생했던 일이 기억되며, 지금의 정용덕 장로가 당시 청년2부 회장으로 수고해 주었는데 교회의 중직을 맡아 일하는 모습에 기쁨이 더하다.

오랜 세월이 지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고 또 시대가 어떻게 급박하게 변화할런 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다 해서 신앙의 본질은 변치 않을 것이다. 성경말씀, 진리의 말씀이 변할 수 없듯 교육의 원리도 변함이 없으리라 본다.

교육은 나 자신이 보여주는 교육이 된다면 더할 나위없는 진정한 교육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고, 이웃을 보살피고 이해하며, 친구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교훈이듯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지식을 나누어주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교육을 통해 밝은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가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학교가 규모나 수적으로 미약해졌지만 체계적인 교사훈련과 신앙수련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진실어린 교육이 있는 기관이 되길 소망한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 앞에 아름답고 밝은 미래가 있기만을 바라며 더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한다.



‘초동교회는 모이고 흠어지는 교회다’ 성탄전야 단상



변건울 목사

초동가족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2월, 초동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로 기억합니다. 저는 어린이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지만, 12월 24일 성탄전야를 맞아서 청소년부,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길거리 찬양을 하러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빨간 모자, 루돌프 머리띠, 산타 옷으로 꾸민 초동 청년 그룹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펠리즈 나비다, 펠리즈 나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을 부를 때 행인들은 지나가며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곁에 서서 박수를 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피카디리 극장 앞, 청계천 다리 밑, 탑골공원 앞을 걸으며 캐롤송을 부를 때, 노래를 부르던 초동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모든 행인들의 얼굴엔 기쁨가득한 표정이 이어졌습니다. 웨이리 빵집 사장님은 옆에서 함께 박수를 치시더니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케익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비록 영하의 날씨에 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기타를 치느라 제 손가락은 얼얼해졌지만, 청년들과 즐겁게 캐롤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참 따뜻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지는 기억입니다.

막 초동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던 저에게 그날 청년들의 모임은 매우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성탄전야 모임을 위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가깝게는 종로 근처에서, 멀게는 분당, 용인, 안양, 일

산에서 종로3가 한복판까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게임도 영화도 모두 뒤로 하고, 해가 진 겨울 저녁 추위도 뚫고, 한 시간 넘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오는 청년들의 모습은 저에게 하나의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이후로 초동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초동이 단순한 지역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서 참 넓은 범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서울, 경기, 전국, 심지어 해외에 있는 한 명 한 명 믿음의 가족들이 초동이라는 신앙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보다 큰 의미가 초동이라는 끈 안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풀들이 함께 자라나면서 서로 영키고 설켜 공고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듯이 그 끈은 오랜 시간동안 역사와 함께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관계를 맺어온 단단한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단지 넓은 지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종로3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모든 초동 식구들은 흩어져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종로3가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곳곳에서 아름아름 열매 맺고 꽃 피우는 모든 장소가 초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종로3가를 벗어난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초동의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수백 개의 초동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보여주는 수백 개의 별로 빛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초동가족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또 하나의 초동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신학자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는 「흩어지는 교회」에서 “교회는 남을 위한 존재, 곧 세계를 위한 존재이다.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초동교회의 모습에서 이 모이고 흩어지는 이 교회의 이상을 발견합니다.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되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우리 신앙의 끈을 더욱 돈독히 연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별이자 꽃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나타내고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시고 여전히 질곡이 있는 산 밑으로, 갈릴리 사람들에게로 내려 가셨습니다. 것처럼 주일 하루의 거룩한 예배에만 초동의 의미가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얻은 감동을 매 순간 각각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빛나게 할 때 더 충만한 초동의 의미가 나타날 것입니다. 밤하늘 각자의 위치에서 별들이 밝게 빛나듯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초동 가족 한 명 한명이 초동이라는 별이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드러내기를 기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섹션 IV

초동 문예

처절한 제사 | 김의환 장로

그리움이란 에너지 | 이소희 권사

너를 기억하려고 피는 꽃 | 이소희 권사

초동 동산에 모이라 하지요 | 이순안 권사

사계절 | 정일웅 권사

영취산 | 정일웅 권사

다시 논밭으로 | 정일웅 권사

만남 | 차오성 권사

오고 가는 계절 | 차오성 권사

카타콤베 | 강귀순 권사



처절한 제사

고향에서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고향에서 쫓겨나
건달들과 어울리던 중
구원자로 부름 받아
암몬을 굴복시키고
승전 용사 되어 미스바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께
손뼉 치고 춤추며
가장 먼저 달려 나오는 외동딸이여

스무 개의 성을 쳐부수고 돌아온
강인한 용사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처참함으로
스러지려 할 때
1서원대로 행하십시오
낭랑한 위로

이방인식의 우매한 인신공양에
모리아 산에서의 숫양도 없이
침묵만이 묻혀있고

2육년동안 사사로 있다가
3믿음의 영웅 대열 올라
길르앗 미스바에 잠든 아버지



김익환 장로

주) 1. 사 11:36, 2. 사 12:7, 3. 히 11:32-33

그리움이란 에너지

그리움이란 날개가 있어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지만 그를 잡아내는
에너지가 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리웠던 사람이 곁에 와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사랑의 시선을 보내는 에너지
그리움은 그리움을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고 에너지란
새 생명이 탄생한다

우리에겐 영혼의 에너지가 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그리움의 원천이 있기 때문일까
삶의 강을 건너 삶 너머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움이란 에너지



이소희 권사

너를 기억하려고 피는 꽃

2022. 10. 29

이소희 권사

올가을은
가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다
동산 자락 바위에 앉은 철쭉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가을 아닌 여름 봄으로
뒷걸음치는 것을 보면

틈새라고는 없는
팽팽하게 맹렬히 움직이는
슬픔의 물결을 감지하고
남은 자들의 가슴 벽을 타고 스며드는
깊이 없는 곳까지 찾아가는가

너를 기억하는
그 기억보다 더 큰
영원히 붙잡아둘 그 기억을
소환해 널 추세로 봄으로 간다

초동 동산에 모이라 하지요

사시사철 그 집은 푸른 초장이지
열린 초장 문 누구나 들어가지
가슴 아파 눈물 서려 앞이 안 보여도
초록 동산 그 집에 가면 위로가 되지



이순안 권사

어느때가 스테인 글라스 십자가에
신의 아들이 나무에 두 팔을 뻗으시고
발이 포개져 못 박히신 게 보였지
사람의 자녀 내 죄가 그분을 팔았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는 몸은 물과 피를 쏟으시나
사랑의 눈빛은 초록 동산을 바라 보셨지
초록 동산에는 아기 꽃 어린이 꽃 청년 꽃
한자리에 모인 사랑 꽃 동산

동산에 가족 모두 모이라 하지
가까운 이웃보다 자주 만나는 무촌사이
주님이 맺어준 풀 수 없는 고리
천상에서 보고계실 모든 이의 친구이신 분이
노래하고 춤을 추자며 누구나 오라하지

사계절

봄
제주 유채꽃이
물으로 물으로
기어오른다

여름
사람의 몸에다
바닷물 같은
샘을 파낸다

가을
설악 단풍
한라산으로
내달린다

겨울
파도가 천년 넘게 찾아와
두드리지만
무심한 돌섬 대답이 없다



정일웅 권사



영취산

정일웅 권사

눈 내린 영취산
숨이불 밀어낼 때
능선 아래로 불질러 댄다
선녀 따라 내려온다

천상선녀 내려와 땅에서도 꽃 가꾸다
몸 다쳐 누웠는데
나무꾼 진陳 낭군 만나 살아간다

어느 날 딸을 낳아 달래라 이름 하여
세월 따라 성장하니
고을 사또 몸종 되라고 호령하니
못 간다고 거절 한다 사또의 흉악무도
아비 진도 울다 죽어 그 무덤에 붉은 꽃
만발하니 진과 달래 무덤이라
영취산에 봄이 되면 진 아빠와 달래 딸이
온 산 덮어 올 봄에도 사람들이
모여들며 고을 사또 원망하고
영취산에 퍼져간다

영변약산 진달래는 못 보았지만
영취산의 진달래가 우리나라 으뜸이라



다시 논밭으로

정일웅 권사

옛 우리 선친들은 새 봄이 오면 팽이와 쟁기를 지고 논밭에 나가 밭 갈고 논 갈아 농사 준비를 하였다. 봄에 심고 여름에 김도 매고 거름 주어 곡식을 기르고 돌보아 주어야 가을의 알곡으로 무르익어 쪽정이는 날려 버리고 알곡만 창고에 넣어야 찬바람 불어오면 식구들이 오순도순 한 겨울이 즐겁고 배불러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다. 온 세계 동네들이 코로나란 괴질로 3년여를 불안과 고통 코와 입을 막고 부모가 죽어가도 이웃의 형제가 죽어가도 운명을 지켜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막 괴질이 물러가는 이 때 우리는 좌절에서 일어나 호미 낫 팽이와 쟁기를 준비해 종전에 논밭 갈던 때와 같이 다시 풀밭 고을의 논밭에 나와 땀 흘려 논밭 갈고 씨앗 뿌려 김매고 북돋아 알곡 만드는데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초동식구로 다시 뛰고 쟁기질 하는 농군으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소도 물고 쟁기질도 하고 소꼴도 베어오고 풀도 뽑고 물꼬도 손보고 낮으로 벼 보리도 베고 큰일 못하면 작은 일로 큰 일꾼은 쟁기질 씨레질 지게질 능력대로 일하면 가을날 곡식을 걷을 것이고 추운 겨울에 배부를 것이요 칭찬이 자자할 것이니 칭찬받는 일에 앞장서 풀밭 고을로 함께 모이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만남

꽃은
나비를 만나면 행복하고
나비는
꽃을 만나면 행복하다

거창하지 않아도
친구를 만나면 전도하고
복음 전해 기쁘고 행복한

돌아는 연어처럼
소망하던 주님 만나
주님 품에 안긴다



차오성 권사

오고 가는 계절

차오성 권사

가을은
금빛 바바리 입고 걸어가고
낙엽도 춤추며 떠나가고
흰 눈은
웃으며 살자기 찾아와
친구 하자하고
가는 가을은 잘있어 하고
오는 겨울을 웃으며 맞이하면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오가며
내 청춘도 즐거워진다

‘카타콤베’

옛 로마인들의
지하 공동묘지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장소다
서랍장의 서랍을 빼 놓은 듯
헛한 자리는
고요로 꽉 채워져 있고
좁은 통로의 발소리는
어둠이 먹고 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송고한 숨결들
목숨을 내놓고
음습한 이곳에서
숨죽이며 주님을 섬겼다니
가슴에서 주룩주룩 눈물이 흐른다

주님은
그때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데
나는 지금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계으른 나의 신앙은
삭정이 되어 버석거리고
내 영혼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니
슬프기만 하다



강귀순 권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13)



초동교회 | 풀밭 제161호

섹션 V

우리 초동

예배 및 행사일지

교우소식

초동의 기도



예배 및 행사일지

(2022년 1월~2022년 12월)

| | | |
|-------|---------------------------------------|---|
| 2022년 | 1/1 | 새해아침예배 |
| | 1/2 | 성만찬예전, 청지기·제직 임명, 기관월례회, 교회학교 졸업진급예배, 은혜성경일독 시작 |
| | 1/4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 1/9 | 주현절 첫째주일 |
| | 1/16 | 여신도회 주일 |
| | 1/30 | 제160호 『풀밭』 발간 |
| | 2/2 | 설명절 수요가정예배 |
| | 2/3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 2/6 | 성만찬예전 |
| | 2/19-20 | 청소년부 수련회(온라인) |
| | 2/21 |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제 55회 정기총회 (소노벨 변산) |
| | 2/26 | 청년부 수련회(이천새터교회) |
| | 3/2 | 3.1절 기념주일 에스더기도회 |
| | 3/5-6 |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온라인) |
| | 3/6 | 사순절 첫째주일 / 성만찬예전 |
| | 3/8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주관, 서울 성남교회당) |
| | 3/13 | 청년주일 |
| | 4/1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 4/3 | 성만찬예전 |
| 4/10 | 종려주일, 부활절맞이 견신례 | |
| 4/17 | 부활절 온가족예배, 성만찬예전, 부활절 계란나눔 | |
| 4/21 |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교육강좌(성북교회당) | |
| 4/27 | 수요예배(설교 : 김영호 목사 / 미국 동부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 |

| | | |
|-------|--------------------------|--|
| 2022년 | 5/1 | 어린이·청소년 주일, 교회교육 주일, 온가족 예배, 성만찬예전 |
| | 5/3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 5/8 | 아버지 주일, 정기제직회 서울장로회 운영위원회 (본 교회당) |
| | 5/10 | 초동학사 학부모·교역자 만남의 시간 |
| | 5/19 |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1지구 이동강좌(수도교회) |
| | 5/22-6/12 | 권사 임직 및 신임 서리집사 임명대상자 오리엔테이션 |
| | 5/23 | 돈의동쪽방 아침예배 |
| | 5/28-6/4 | 특강 (주제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무설계 / 강사 : 주종철 성도 / 본 교회당) |
| | 5/29 | 캄보디아 교인에게 보낼 헌옷 모으기(-7/24) |
| | 6/2 | 전체여신도회 수련회 (주제 : '슬픔에서 기쁨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 장소 : 초동교회 안성수양관) |
| | 6/5 | 성령강림주일, 성만찬 예전 |
| | 6/12 | 총회선교주일 |
| | 6/19 | 6.25 민족화해주일, 권사 임직예식 및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 |
| | 6/21 | 교역자/직원 수양회 |
| | 7/1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 7/2 | 당회수련회(당회실) |
| | 7/3 | 성만찬예전, 제직수련회 (주제 :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 강사 : 허광섭 목사-서울노회 공로목사, 창현교회 원로목사) |
| | 7/12 | 남신도회 야유회 (김영진 문학관) |
| | 8/7 | 성만찬예전 |
| | 8/14 | 청년부 수련회(용인 자연숲캠핑장, 에버랜드) |
| | 8/21 |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본 교회당) |
| | 8/27-28 | 청소년부 수련회(본 교회당) |
| | 8/28 | 영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본 교회당) |
| 8/30 | 한국 생명의전화 46주년 기념식(본 교회당) | |

| | | |
|-------|--|--|
| 2022년 | 9/1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 9/4 | 창조절 첫째주일, 성만찬예전, 거제도 애광원 바자회 |
| | 9/15 |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지구연합이동강좌 (주제 : 다시 시작하는 힘-하나님의 플랜B / 강사 : 이성진 목사-제주남부교회·제주노회장 / 장소 : 경동교회) |
| | 10/1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 10/2 | 창립77주년기념 특별찬양 온가족예배, 성만찬예전 |
| | 10/16 | 추수감사주일, 온가족예배, 지역사회 떡나눔, 드보라 여신도회 주관 새우젓 바자회 |
| | 10/20 |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제 99회 정기총회 회원대회(보광동교회) |
| | 10/30 | 종교개혁주일 |
| | 11/1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 11/6 | 성만찬예전 |
| | 11/10 |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1지구 총회(경서교회) |
| | 11/13 | 수능기도회 |
| | 11/23 | 기드온섬김용사운동 김치나눔봉사 |
| | 11/27 | 대림절 첫째주일, 연합구역예배 |
| | 12/1 | 여신도회 1일기도회 |
| 12/4 | 성만찬예전 | |
| 12/18 | 대림절 넷째주일, 세례건신례예식, 2023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 | |
| 12/25 | 성탄새벽 촛불기도회, 성탄 축하 행사, 성탄절 온가족예배, 유아세례예식, 청지기 송년위로 | |

교우소식

| | | |
|------------|-------------|---|
| 새교우 | 2022.1.2. | 신경숙 성도(루디아) |
| <hr/> | | |
| 출산 | 2022.2.6 | 구홍모 성도 · 김수연 집사(특녀) |
| | 2022.2.11. | 김대홍 집사 · 전이환 집사(특녀) |
| | 2022.2.17. | 김기원 성도 · 신소정 집사(특남) |
| | 2022.4.7. | 심재호 · 박민영 성도(특남) |
| | 2022.5.29. | 전석인 · 이지혜 성도(쌍둥이) |
| <hr/> | | |
| 소천 | 2021.12.31. | 故 김영도 권사(김홍수, 김성수, 김숙현 권사 부친) |
| | 2022.1.9. | 故 전숙희 님(박종숙 권사 모친) |
| | 2022.3.10. | 故 임정순 권사 |
| | 2022.3.13. | 故 권숙정 권사(양원석 집사 모친) |
| | 2022.3.14. | 故 유숙현 님(김의환 장로 모친) |
| | 2022.3.30. | 故 이기환 권사 (최영자 권사 부군, 이중석, 이상영 집사 부친) |
| | 2022.4.19 | 故 백광수 집사(최순희 권사 부군) |
| | 2022.6.3 | 故 양미영 권사(권현준 성도 모친) |
| | 2022.6.7. | 故 신광희 권사(이남숙 권사 부군) |
| | 2022.6.11. | 故 배금순 권사(김현석 집사 모친) |
| | 2022.7.3. | 故 신길철 권사(김미자 권사 부군) |
| | 2022.7.14. | 故 김희순 권사(강귀순 권사 모친) |
| | 2022.7.19. | 故 김성실 권사(한경민 집사 모친) |
| | 2022.8.17. | 故 오금순 성도(정형직 권사 모친) |
| | 2022.10.19. | 故 우원숙 권사(박민균 권사 모친) |
| | 2022.11.3. | 故 박호준 권사(유정재 권사 부군) |
| | 2022.12.5. | 故 신용순 권사 |
| | 2022.12.8. | 故 권진영 권사 |
| | 2022.12.12. | 故 박규명 권사(이광자 권사 부군) |
| | 2022.12.18. | 故 이희종 장로 |
| | 2022.12.28. | 故 박수신 권사(신경수 권사 부군) |

결혼 2022.2.19. 허철원 성도 · 김지현 성도(김창수 성도 · 이선옥 권사 장녀)
 2022.5.7. 전석중 · 손미래 성도(심숙희 권사 차남)
 2022.7.9. 매튜스펜서 · 김민혜 성도(김정한 · 김금자 권사 딸)

부임 2022.3.6. 이상준 목사
 2022.3.27. 박지은 목사
 2022.5.29. 임하늘 목사
 2022.7.3. 신정승 주임

헌물 2022.1.9. 故 김영도 권사 유가족(떡)
 2022.1.16. 전체여신도회(떡, 굴)
 정홍조 권사(향장미 200개)
 2022.1.23. 양원석 · 주화균 권사(락토픽 51통)
 2022.2.27. 김창수 · 이선옥 권사(딸 결혼 감사 떡)
 2022.3.20. 김의환 장로 · 황명희 권사(어머니 장례 감사 떡)
 2022.3.27. 故 권숙정 권사 유가족(떡)
 2022.4.3. 故 이기환 권사 유가족(떡)
 2022.4.17. 노계옥 권사(부활절 계란), 애광원, 익명(부활절 쿠키)
 2022.5.15. 심숙희 권사(아들 결혼 감사 떡)
 2022.6.12. 도은영, 도진영 성도(어머니 생신 감사 떡)
 2022.7.3. 담임목사 부임 10주년 감사(온면), 당회(제직수련회 떡)
 2022.7.24. 강귀순 권사(어머니 장례감사 떡)
 2022.7.31. 한경민 · 조명희 집사(어머니 장례 감사 호두과자)
 2022.8.28. 정형직 · 박혜련 권사(어머니 장례 감사 떡)
 2022.9.11. 김인숙 권사(나눔식탁 송편)
 2022.10.2. 최웅섭 · 박문희 권사 가정(최웅섭 권사 구순 감사 온면)
 교회(창립 77주년 감사 떡)
 2022.10.16. 당회(추수감사주일 떡)
 2022.10.30. 박민균 권사 가정(어머님 장례 감사 떡)
 2022.11.6. 최동익 · 권순정 장로(성찬용 컵)
 2022.11.20. 故 박호준 권사 유가족(장례 감사 떡)

이사

- 2022.1.9. 임성환 · 김지현 집사 (영등포구 선유동)
- 2022.4.17. 유형기 집사 · 김기연 권사, 유예은 청년(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 2022.4.24. 조인철 집사(노원구 노해로)
- 2022.5.1. 김권태 · 이태주 권사(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 2022.5.15. 설훈 · 김난영 집사, 설건 청년(종로구 세검정로)
- 2022.5.22. 김민성 집사(김포시 김포한강11로)
- 2022.6.19. 박진선 집사(성동구 왕십리로 28길)
안병선 · 신지연 집사(성동구 행당로 76)
- 2022.6.26. 정상기 성도 · 김민주 집사(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 2022.7.31. 김미옥 권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 2022.8.28. 한재호 · 이경희 권사(은평구 갈현로 5길)
- 2022.9.18. 김흥수 · 김지희 집사(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2022.10.2. 이영자 권사(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2022.10.9. 어부 성도(종로구 창신동)
- 2022.11.13. 김은숙 권사(경기도 과천시 향촌4길)

사임

- 2022.3.27. 이승호 목사
- 2022.4.17. 오해창 주임
- 2022.12.11. 이상준 목사

임명

- 2022.5.8. 홍성용 집사(청년부 차장)

임용

- 2022.8.14. 최재용 성도(가천대학교 AI 인공지능학과 교수)
- 2022.9.11. 서진 집사(계명대학교 교수)

입원

- 2022.4.17. 임수봉 권사
- 2022.5.22. 유예은 성도
- 2022.10.9. 박호준 권사

입대

- 2022.10.9. 김요한 청년(김성진 · 김지연 집사 장남)

전역

- 2022.7.10. 강동빈 청년(강현석 · 박윤정 집사 장남)

복교

- 2022.10.2. 윤석송 집사(인천구역, 에스더회, 호산나성가대)

| | | |
|----------------------------------|---------------|--|
| 안성공원 묘원을 위한 장지 기증 | 2022.7.3. | 故 양미영 권사 유족 |
| | 2022.9.11. | 한경민 집사 가정 |
| 연주회 | 2022.9.25-30. | 서현석 장로(2022 헤이리 국제 음악제) |
| 개업 | 2022.3.20. | 안병선 · 신지연 집사(은사 즉석떡볶이) |
| | 2022.4.10. | 김종건 · 정선훈 권사(종로빈대떡 용답점) |
| 개원 | 2022.2.20. | 양원석 · 주화균 권사(부천 경희한방병원) |
| 공연 | 2022.1.14. | 전병운 성도-오페라 라트라비아타 |
| | 2022.4.24. | 정춘 집사(오르간 독주회) |
| | 2022.5.1. | 최정빈 성도(독창회) |
| | 2022.7.2. | 맹지연 성도(첼로 독주회) |
| | 2022.7.10. | 윤해진 성도(듀오 콘서트, 반주 : 홍성미 성도) |
| | 2022.11.12-13 | <서울의 맥베스> (기획 : 윤명자 권사, 연출 : 박정근 권사, 출연 : 김의환 장로) |
| 전시회 | 2022.11.6. | 이순안 권사, 조향남 권사(사진 전시회) |
| 출간 | 2022.5.1. | 권우용 집사(해설이 있는 음악프로그램) |
| | 2022.10.23. | 권우용 집사(해설이 있는 토스티 가곡집) |
| 해외 교우 | 2022.11.20. | 샤론 정-미국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당선 |
| 수상 | 2022.10.23. | 조민성 청년(2022 스위스 제네바 세계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 |
| 특강 | 2022.5.28. | 주종철 성도(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무설계) |
| | 2022.6.4. | 주종철 성도(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무설계) |

초동의 기도

손성호 담임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주여, 초동교회를 맡아 돌보던 담임 사역자들을 잠시 더듬어 봅니다. 초동교회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일본인의 약초정교회를 인수하였습니다. 초동교회의 양 떼를 보살핀 이는 초대 당회장 함태영(1945~1946년 재임, 초대 대한민국 부통령)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인 김구 선생도 출석하는 명문 교회였습니다.

주여, 이성국 목사님(1947~1949년)은 초대 담임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2대 당회장은 국제 감각을 갖춘 정대위 목사님이 이끌었습니다(1949~1954년, 건국대 총장). 다음으로 조향록 목사님(1954~1976년, 한신대 총장)이 3대 당회장으로 부임하여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초동의 혼과 정신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 뒤 신익호 목사님(1977~2002년)이 4대 담임목사가 되어 초동교회를 맡아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석찬 목사님(2003~2012년)이 5대 담임목사로 사역한 후, 마침내 손성호 목사님(2012~현재)이 6대 담임목사가 되어 10년째 초동교회를 인도하면서 초동교회의 100년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여, 초동교회를 위해 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초동교회를 이끄는 당회장 손성호 담임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소서. 맡은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원로 교우들의 심방과 장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도, 심령이 목마른 양 떼에게 신령한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여 교우들을 안정시키고, 교회를 하나로 화목하게 이끌고 있음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래된 교회 역사만큼이나 우리 초동교회의 교우들은 평균 나이가 80세에 가까운 정도로 많고, 특히 함경도 피난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많은 교우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이 초동교회를 신앙의 본향으로 생각합니다.

주여, 초동교회의 담임목사인 손성호 목사님께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소서. 들을 힘 있고 능력 있게 모든 위원회, 각 신도회, 교회학교 등 모든 교우를 이끌게 하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강단 위에서 하늘 만나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픈 이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베풀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초동교회 100년의 비전이 목사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믿음의 유산과 초동의 아름다운 신앙전통이 다음세대로 잘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서는 초동교회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미미했을지라도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초동교회는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대한민국의 교통 요지 종로에 우람한 건물을 우뚝 세웠으며, 좋은 수양관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 중국 연변, 인도 뉴델리, 필리핀 등에 선교사를 보내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초동교회 주관으로 생명의 전화도 개설하였습니다.

주여, 기독교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초동교회는 훌륭한 유산을 가졌습니다. 초동교회의 소식지 『풀밭』이 160호를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며, 열린 교회를 지향하여 기독교 문화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동교회는 명실공히 내외적으로 한국 교회의 향도로서 건축, 선교, 문화의 지평을 열어가는 명문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주여, 초동교회의 이 같은 유산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욱 눈부시게 향상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동교회의 교우들이 각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듯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로부터 디모데에게로 이어졌듯이, 초동교회의 가정마다 믿음의 계승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가 증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손녀들로 구성된 믿음의 4대 가족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여, 초동교회의 어른들이 먼저 순전한 믿음과 예배 생활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해 밤낮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초동교회에 믿음의 4대 가족이 다 함께 부르는 찬양의 노랫소리와 믿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과 청년신도회, 에벤에셀 젊은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해방 이후 초동교회를 지금껏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동교회는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큰 발전과 부흥을 일구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초동교회의 주요 공동체 식구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80세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 젊은 초동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여, 초동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살펴주소서. 향후 초동교회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그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꿈과 신실한 믿음을 심어주어 올곧은 생각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그들은 가정의 웃음이고 교회의 소망이며 미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동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을 베풀어주소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주소서.

주여, 초동교회의 새벽이슬처럼 청정한 청년들과 청년신도회, 에벤에셀 젊은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황금 같은 청년기를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하소서. 그들의 심령에 십자가 복음이 깊이 새겨져 초동교회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초동교회를 거쳐 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그들도 세상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올곧은 십자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일당 천을 능히 감당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 당당히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 시대는 심각한 저출산 후유증으로 갓난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고, 청소년의 뛰노는 모습이 사라지고, 청년들의 힘찬 함성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위기에 초동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앞장서서 시대를 일깨우는 자들로 우뚝 서게 하소서.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암울한 이 시대의 모든 난관을 뚫고 독수리의 비상처럼 하늘 높이 솟구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초동교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진군하여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곳곳에 건설하게 하소서. 아멘!

연로하신 어른들, 환우들, 삶의 무게로, 마음의 상처로, 고난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초동교회의 오랜 연륜만큼이나 교회 구성원들 역시 나이 많은 교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고향을 떠나 해방과 6·25전쟁을 겪고, 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의 역군들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이들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에 이른 교우들은 여러 질환으로 병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노년의 삶이 처량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몸이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까지도 능히 살리시는 달리다공의 주님께서는 병상에 누운 교우들을 크신 능력으로 일으켜 주소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초동교회 본당에 모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험에 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또한 질병에 무너지고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초동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다 끝에 살지라도 찾아가서 십자가 피 묻은 손길로 그들의 영육을 붙들어주소서.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게 하소서.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 주소서. 비록 죄의 누더기를 걸친 탕아일지라도 두 팔 벌려 기쁘게 맞이하는 주님의 품으로 속히 들어오게 하소서.

주여, 초동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를 보살펴주소서. 나이가 많아 몸이 성치 않은 이들, 삶의 무게와 상처로 마음 문을 닫고 잠시 교회를 떠난 이들, 질병으로 병상에 누운 교우들의 몸과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일일이 붙들어주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 모든 소망과 기쁨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 본향을 향한 신앙의 순례길이 힘차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과 시대의 아픔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지 3년이 지나갑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신음합니다. 우리 초동교회도 마스크를 쓰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교우들이 세상을 뜨거나 혹은 병상에 누워 나오지 못합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가정이나 사업이 힘들고 지칠 때 교회에 나오게 하소서. 2층 기도실이나 지하 기도실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온갖 어려움을 초동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로 불사르게 하소서. 모든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속히 코로나를 거두어주소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소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일찍이 이집트 땅에 온갖 질병을 내려 당신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와 이 나라에 임한 코로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거두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코로나를 단순한 바이러스로만 여기지 말게 하소서. 코로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주님의 손길에 달렸으니 죽으나 사나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진보하게 하소서. 아멘!



인류와 민족, 이 나라 이땅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회복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더는 상처와 아픔이 없도록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주소서. 우리나라는 삼팔선을 가운데 두고 나라가 둘로 쪼개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낀 반도 국가로 예부터 수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술한 외세의 말발굽 아래 짓밟힌 상처 많고 아픔 많은 민족입니다.

주여,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도 모자라 이제 이 나라는 진영이 둘로 나뉘어 다뿔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미워하며 심지어 증오합니다. 그 골이 너무나 깊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도 없고 메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신 주님의 십자가 능력만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분열을 던고 일치로 나아가고, 갈등을 극복하고 화목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주여, 화목과 일치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해 주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 민족, 이 겨레, 이 나라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소서. 나라 곳곳에,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사회의 본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여,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에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주소서. 오랜 갈등과 반목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빛을 열방에 널리 비추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통일시대와 한반도의 복음화, 땅끝까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겨레의 한복판에 남북을 가르는 삼팔선이 그어진 지도 어언 70년이 흘렀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특히 우리 초동교회는 북에 터전을 둔 채 황급히 떠나온 피난민 교우들이 많아 70년 세월을 눈물로 아프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민족, 한 핏줄이던 겨레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는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주여, 70년은 옛 바벨로니아 땅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향과 슬픔의 세월을 끝내고 고토 이스라엘로 되돌아간 세월입니다. 이제 이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셔서 남과 북이 다시 이어지는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소서. 피난민 교우들이 세상을 모두 뜨기 전에, 속히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맛볼 수 있게 하소서. 피 흘림 없는 평화적 통일 시대가 기적처럼 이 땅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선교사들에 의한 평양의 뜨거운 부흥처럼 다시금 그 부흥의 불길을 활활 일으켜 주소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국가의 선봉장이 되게 하소서. 선교의 견고한 전초 기지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말세지말에 선교의 책임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꿈에도 그리던 통일 시대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아멘!



초동교회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초동교회의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송은 말씀 선포와 더불어 예배의 꽃이요 면류관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불꽃을 일으키는 찬송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조로 만든 영혼의 기도입니다. 지난날 주님께서서는 초동교회 성가대에 복을 주셔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성가대 지휘는 초대 때부터 장수철, 김대현, 박재훈, 이준우, 서현석, 박진영 등으로 구성된 초동교회 성가대는 1960~1970년대 한국 교회 음악 3대 성가대 중의 하나로 훌륭한 찬송가를 여러 곡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박목월 작사, 김대현 작곡의 「헌당송」과 황금찬 작사, 김대현 작곡의 「영광송」이 있습니다. 김영진 작사, 오소운 편곡의 한국기독교장로회 노래인 「대나무처럼 기러기처럼」도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찬송가」에 포함된 황금찬 작사, 황철익 작곡의 「아침 햇살 비칠 때」(443장)도 있습니다. 김영진 작사, 박재훈 작곡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319장)도 있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찬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성가대를 굳건하게 붙들어주소서. 시편의 저자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동작을 통해 호흡 있는 자들마다 주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초동교회의 성가대에서 뜨거운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아니 더욱 많은 무리가 하늘나라의 폭포수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소서. 새로운 인재들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초동교회의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종로를 넘어 서울을 넘어 이 땅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되게 하소서. 아멘!

돈의동 선교와 낮은자들을 위하여

주여, 돈의동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쪽방촌입니다. 이곳에 사는 이들은 가난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나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과 긍휼로 돌보게 하소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아버지요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주님을 향해 베푸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손길에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크게 비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주셨습니다. 교만한 심령을 내치고 가난한 심령을 아끼고 보살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참된 친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초동교회와 교우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분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소서. 아멘!



종로3가, 지역과 직장 선교를 위하여

주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지상 대 명령을 되새겨 봅시다. 땅끝으로 나가기 전에 우선 일차적 선교 지역인 예루살렘 같은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주여, 종로3가에는 보석을 취급하는 금은방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중심지답게 젊은 직장인들이 다니는 회사나 사업체도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초동교회에 허락하신 영혼들입니다. 초동교회는 복음의 그물을 던져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할 황금 어장입니다. 교회 밖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어장으로 나아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요즘은 자고 나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소식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 슬픈 심령들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영혼들에게 기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죽을 죄인을 살리는 천국 복음으로 교회 주변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게 하소서. 삭막한 영혼,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을 윤택하게 하고 해갈시키는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그들을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게 하소서.

주여, 이 시대에 진실로 바울의 후예가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초동교회 교인들의 손과 발로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게 하소서. 주변의 예루살렘인 종로3가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초동교회가 되게 하소서. 초동교회에 복 주시어 “가서 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항상 가슴에 품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소서. 아멘!

풀밭 제161호

2023년 1월

발행인 | 손성호

편집인 | 초동교회 예배예전위원회 문화부(위원장 정병우)

펴낸곳 | 초동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길 23

전 화 | 02-765-0528 / 3077, 02-763-8308

인 쇄 | 교육문예사 02-2263-6972